東亞日報

月曜 刊夕

面十合夕朝 紙本

東亞日報社 所行發
光化門 電話代表番號 一九〇〇

社說

夏期休暇의 利用

—學生들에게 一言—

一

夏期休暇는 本格的으로 들어섯다. 昨今에 이르러 中等學校까지 全部 夏休가 開始된 것이다. 이날을 當하여 月餘의 閑暇를 享有하는 學生들 가진 學生諸君에 한마디의 말이 없을수 없다.

二

學生은 夏期休暇를 가질수 있는 幸福이 얼마나 貴한것이며 얼마나 가지고 있는것을 充分히 理解하는가? …

三

山으로 가는 學生이어든 …

四

…

앨루시안群島에서 米海軍演習計劃

떠취하버에 海軍根據地建設?

太平洋에 對한 認識如是

【華盛頓十八日發聯合】 米海軍은 一九三五年에 앨루시안群島方面에서 海軍演習을 擧行하려 計劃中인바 이것은 米海軍이 將來 떠취하버—에 海軍根據地를 建設하려는 것으로 今番海陸軍飛行隊의 앨루시안群島編隊飛行과 함께 米海軍의 對太平洋에 對한 認識如何를 如實히 說明하는 것이라하야 크게 注目되어 잇다

알라스카에 米編隊飛行 陸軍省發表

【華盛頓十八日發】 十九日 午前一時 …

거이解消狀態

桑港總罷業氣分

開店、鐵道運轉開始

【桑港十八日發聯合】 …

各船長에게 集合을命令 船員의손으로 積荷를하리고

特別警備隊員이 왁너氏에發砲

왁너氏狙擊은 警告의發砲로判明

王揖唐氏代行

黃郛氏引退?

十月頃엔一切를整理

【北平十八日發】 …

決定된政務官九名

政友、除名을處分

同時에聲明書를內外에發表

對政府態度가强硬

【東京電話聯合】 政友會에서는 …

聲明書 …

貴院空氣도惡化

內閣前途에一抹의暗影

【東京電話聯合】 …

日本과에國間 通商暫定

【滿洲東京電話】 …

貯藏租解除

政綱政策要旨

二十日閣議에서 政綱政策을決定

◇政策逐行에邁進

【東京電話聯合】 政務官決定의 臨時閣議는 十九日 午後一時三十分부터 永田町의 首相官邸에 開會하고 …

英蘭通商協定

交涉決裂되는듯

未然에防止코저休會

六月中의 對外貿易

八月中、日米間 海軍會商說

重要諸問題에드하야

鐵道政務次官 變更事情

政務官詮考의 內幕과批評

前後十二日만에決定

【東京電話聯合】 …

殖產債券發行 條件等發表

海相決意堅固

齋藤大使의報告듣고

旣定方針遂行計劃

【東京電話聯合】 十九日 …

床次町田兩相 政黨工作協議

夕刊後市況

補血强壯 빗나는 健康으로

포리타민 ポリタミン

「포리타민」은世界醫學界에서滋養效果가가장優秀하다고證明된貴重한營養「아미노酸」을主成分으로한獨特한補血强壯劑의오도普通의鐵劑나蛋白質의滋養劑와는다름으로服用後直時體內에吸收되야피(血)로되고살(肉)로되야迅速히衰弱한것을恢復식히며體內의精力을增强케한은貴重한營養劑이올시다

醫學博士四四〇餘名의權威잇는推獎報告가有합니다。

醫家諸氏는左記疾患에實用합니다

貧血、病中及病後의衰弱、虛弱質、神經衰弱、肺結核、產前產後、慢性胃腸病、精力減退等

說明書는知名藥店에잇숨

液狀포리타민 一五〇瓦 一圓五拾五錢 二五〇瓦 二圓五拾錢 五〇〇瓦 四圓五拾錢

「포리타민」에는各病症에따라左記四種品이잇습니다。

腺病的虛弱에는 요—도포리타민
神經營養에는 알젠포리타민
健胃强壯에는 기나포리타민
呼吸器病에는 구아야쿨포리타민

發賣元 大阪市東區道修町 株式會社 武田長兵衛商店

製造元 大阪市東淀川區頸上町 大五製藥株式會社

朝鮮各地有名藥店에서販賣

33-610(O)

ClibPDF - www.fastio.com

◇철맞난 無窮花◇

僻村에染病이蔓延 全洞民委席呻吟中
―全南靈巖郡下의悲慘事―
醫療機關없어救命絶望

【나주】 전남영암군 시종면 신연리(靈巖郡始終面新燕里)는 약六十호되는 촌락인데 장질부사환자가 十八일현재에 六十명이나 된다는바 한집의식구가 전부 누어잇는집이 태반이라하며 범서사망자도 수명이라한다。 현상에가상으로 농사기에 一촌이전부 환자로거이 전멸상태이므로 농사도 지을수없는형편이바 살어난다해도 장차의 고생하이 거경이라하며 더욱이의료기관이 없으므로 앞으로생명을 구제할 도리가 없는형편이라한다

전 경성지방법원에 잇엇다。 영암군 영암면 상리(靈巖郡靈巖面上里) 장화행상 이덕록(李金錄)은 당년 한순리(含春里) 一二七번지의 남편이 조자현(趙子賢) 집에살다가 재작년七월초순경에는 살기가 어려워서 전기집을 한문수(韓文洙)라는 사람에게 八년동안 가치살게한다는 조건하에매가하고는 가치 살어왓섯다 한다。

그러자 이집벗은 순미못이광지못하여 한문수의 배미를 부벼나 혹것다가 한문수의 아해 눈에따위 금년정월에 퇴거를 강요하여 하는수없이 전기상리에 이사하여 살엇으나 늘 앙심이 풀리지 안엇다。 그러자 그달 十三일경에 행상하고 들아오던길에 정구윤(尹)모를만나 가치 한문수의 집을 지나다가 분풀이를 해보랑으로자기의 일옥 삼단집에 불을 질러 반소시켯던것으로 인하여 검사는 五년의구형을 하엿는데 언도는 오는二十四일이라한다。

全南地方에 大雨또沛然
今後移秧에充分

【광주지국전화】 한동안한재로 인하야 일반이 기다리고 잇든비는 十八일석양부터 전라도지방에 오게되엇는데 서쪽으로 영광군(靈光郡)에 一백一미리가 오고 그외에는 전부 부족하게 비가 왓는데 十九일에도 비는 계속되어 오므로 이모양으로 온다면 전남지방에서 지금까지 이앙치못한 二만天천정보도 유감없이 이앙하게 될것이다。

그런데 十九일 오전十시경까지의 우량은 광주(光州)四十미리 목포(木浦)十미리 담양(潭陽)大十七미리 광양(光陽)六十三미리 여수(麗水)四十三미리 순천(順天)五十三미리 광양二十미리 보성(寶城)十大미리 화순(和順)三十大미리 장흥(長興)三十一미리 강진(康津)三十三미리 해남(海南)十八미리다。

玄風에豪雨 자못전국

본 十八일 오후부터 경북현풍(玄風)일대에는 비가 오기시작하야차차 흉수로 되어 十九일에이르러서는 대구(大邱)현풍 창녕(昌寧)간에 교통이 두절 되엇다。

그런데 지금까지 현풍과 창녕등지에는 三할배에 되지않은 이앙이 금후부터는 전부 이앙하게될것이라한다。

隣家放火女 五年役求刑

자기의 원한으로 원을 당하여성에 분개하여 내일오 五일에 년의구형을 받엇는데 十九일 오

東京留學生蹴球團入京

재동경조선유학생축구구락부(在東京留學生蹴球倶樂部)一행二十명은 단장 이수환(李水煥)씨인솔아래 대구로부터 十九일오후八시五十五분 경성에도착하야 판천종소선여관에 투숙하엿다。 경성역두에는조선축구협회(朝鮮蹴協)간부와경성축구선수기타 동지들의 다수한출영이 잇엇다。 일행은내일 二十一일 오후四시경성운동장에서 전경성군과 방문축구전을 행하리이오 그후평양으로 향할터이다。

쏘비에트의赤色스포ー츠。
國際協調에로飛躍的轉向！

―【下】―

이들의 情報를接한 獨逸、佛蘭西等의 스포ー츠界에서는 머지않어 쏘비에트가 各種의國際競技聯盟에 加盟을 申請하고 그것을 基礎로하야 다시 國際올림픽委員會에도 加入하야 올림픽 大會에出場하려는 意思는 아닌가고 觀測하고잇는데 이觀測은 반드시도 架空의 想像이라고는 할수없다。

한편으로 赤色스포ー츠 인터를通하야 스파르타키야드로써 世界의 勞働者 스포ー츠의團結을 圖謀하는 同時에 國際올림픽大會에도 進出하야쏘비에트의 組國意識을 昂揚시키려는 것이다。

다만 설령 쏘비에트가 國際競技聯盟에 加盟을 希望하는 境遇에는 聯盟側이 이것을 容認 할것인가 그러치않을것인가는 滿洲國問題以上으로 困難한問題로 取扱되리라고 보나 어떠케 되든지 間에 쏘비에트스포ー츠今後의 動向에는 크게 注目할바가 잇다。

로시아에잇어서 가장 盛行하는 스포ー츠는 蹴球、스키、스케트滑走、自轉車競走等으로 陸上와 水上等은 아직 隆盛의 域에 達하지못하엿고 各競技의記錄도 前述한理由로보아 明瞭하지 않은것이 많으나 現在의 大體記錄의標準의 主되는것은 다음과같으며 特히스케트같은것은 더욱 注目할값이잇다。

【陸上】 百米10秒7 △二百米21秒3 △四百米19秒8 △千五百米4分02秒 △一萬米31分10秒 △走幅跳7米20

【스케트】 五百米43秒 △千五百米1分19秒5 △五千米8分20秒△一萬米17分50秒

【스카ー】 二十킬로 1時間10分10秒 △三十킬로 1時間52分 △五十킬로 3時間18分

그러고 最高體育委員會의 委員長은 前에 全露共産黨 모스쿠바支部長의 要職에잇엇고 現在勞働組合中央評議會의 幹部를 兼任한 有力한 「N・K・안치포프」氏라고한다。 (讀賣所載)

手가 全部 米國人은 아니므로 내슈낼리그라고 하는것보다도 인터내슈낼이라고 일커름만 하다。 外國出生의 一流選手國籍別을 보면 다음과같다。

▲捕手 거스만쿠소(伊)R로베스(西班牙) 가비・하르네르(英蘭)
▲投手 가이・뿌슈(日) 빈・망고(和)삼베스러・존슨(瑞典)칼・하라만(英蘭)빼드・데이닝(丁)早・와네케(獨)
▲一壘手 딴・하스르(丁)거스・슈르(獨)
▲二壘手 로니・카치네로(伊) 로니・빼에트(波)
▲遊擊手 레모・도로쉴 (佛) 마크・게니히(瑞西)
▲三壘手 죠・벰게스(葡) 렙・올반스키(유고)
▲外野手 죠・메드 (英) 죠・마어(英)차크・크라인(獨) 아담・코모로스키(波) 조니・프레데릭(獨)헨리오아어사(希)

米國一流野球選手 珍奇한國籍別

【뉴욕發聯合郵信】 米國은 大野球國을 자랑하고 잇으나 그選

新義州高普生 金剛山往復마라손

【新義州】 新義州公立高等普通學校에서는 生徒四名이 敎諭李一成氏指揮下에 金剛山往復「마라손」을하기로하야 二十日午前九時同校門을 出發하리라고 한다。

立敎4A0電京

京城實業野球聯盟主催의 立敎對京電野球戰은 十九日 午後四時五十分 京城運動場에서審判(球)佐武(壘)石井、田代京電先攻으로 開始한바 四A對零으로 立敎勝(閉戰六時二十五分)

【備考】 二壘打越智、綿貫、有律▲併殺、電)秋元一中村、平山秋元一中村

立敎				(先)京電			
山方内宇赤	田			矢宇有尾越中津平秋			

得點 京電 000000000=0 / 立敎 40000000A=1A

傍聽도禁止코開會
府當局을追窮
今日도續開、十餘項目檢討
不正事件과府常委員

경성부의 의옥사건으로 말미암아 긴급히 개최케된 부회상임위원회는 기보한바와 같이 十九일오후二시부터 부청위원회실에서 극비밀리에 개최되엇다。

회의는 처음부터 긴장한중에서 부회상임위원 전원출석 이달(伊藤)부윤외 각부과 주궁 공박이 대하 심각한 질문과 추궁이 계속되다가 금후대책을 세워 저히 사건의 내용 또는 의옥사건의 발생원인등을 철저히 조사키로 되엇다한다。

그의 협의와 결의내용에 대하여는 경성부의 위신을 위하야 또는 금후상임위원들의 협동의 자유를 위하야 절대로 외부에 누설치 않기로 약속하고 동오후六시에 산회하엿는데 동상임위원회는 명二十일에도 오후二시부터 계속하야 개최하고 十여항목에 대한 정을 거사 또는 조사하리라한다。

그들의 조사활동의 결과는 때가 따라서는 각방면의 주목을 이끌고 잇다。

集團村落을 反滿軍襲擊

十七일 오전영시경 약백명의반만군은 간도연길현 조양천(朝陽川)집안조각에 습래하야 자위단과교전하기를 약一시간만에 가퇴되엇는데 자위단 一명이 중상을 당하엿다。

富山縣水害額 千三百萬圓
農相官房統計課調査

【전동동경전화】 농림대신관방통계과 農林大臣官房統計課에서조사한 부산현대수해(富山縣大水害)의 피해정도는 다음과 같다。

被害總額約一千三百萬圓 內譯 外 七百五十萬圓、町村 百萬圓、其他四百五十萬圓

少年轢傷
자동차에치어

十九일 오후五시五분경에 부내 종로二정목 七十九번지앞 큰길에서는 동대문에서 남대문방면을향하야 질주하는 부내 인사동(仁寺洞)七十一번지 내외(內外)타시부쿠라」특무기관을 습격하야 중요

北朝鮮航空路도開始
各地에郵局、所增設
百二十萬圓의 明年度豫算
遞信局의通信網擴張

극동(極東)에 잇어서 중요한지위를 찾이하고 잇는 조선의 통신망(通信網)은 드디어 명년도부터 일층 확충한 확장을 하게 되엇다。

즉 체신국(遞信局)에서는 명년도 예산편성에 잇어서 목하 각과의 예산요구를 독촉하고 잇는데 이번주일 안으로 전부 정리하야가지고 이달안에 총독부에 제출하기로 되엇다고 한다。

그러나 명년도의 예산편성방침은 대만(對滿)통신정비를 제一주안(主案)으로 하고 경성(京城)을 중심하야 대만주 대일본 내지와 대북조선의 소위 와이(Y)자형의 조선내 대통신망의 완비를 기도하고 잇다는데 그 제一공작으로 종래의 계속사업인 전신전화 정비비 년도할 七十여만원을 금년지으로 개떼하고지어도 명년도에는 백二、三十만원의 전신 전화 정비비를 요구하기로 되엇다고 한다。

그리고 그 대부분을 찾이한 신규사업으로는 현재 경성(京城)평양(平壤)신의주(新義州)등과 중단되어 극히 불편을 느끼어온 조선 만주 연락전화선(連絡電話線)경성안동(安東)간 직통 회선으로 하고 그시설을 위하야 경비 약五十만원을 요한다는바 그계획은 년도 예산시에도 요구하엿으나 실현치못하엿던 것이로 최근에 이르러 만(日滿)관계의 격증으로 말미암아 명년도에는 기어히 실현코저 한다고 한다。

그외에 一、북조선 대만주의통신연락 二、일본내지와 조선간의 연락전화 이용증가에 대한 선후책등이 포함되엇으나

일본내지와 조선간의 연락전화에 대하야서는 일본내지 당국에 파 상의한후 결정을 볼것같다고한다。

또명년도 체신사업중의 신규사업으로북조선 항공로의 개설비약十五만원을 필두로 항공표식(航空標識)신설개설비 조선내우편국소의 증설등이 그대부분을 찾이하고잇다고한다。

校務를띠고 梨花校長歸國

부내이화 여자고보(梨花女子高普)교장 「저처」양은 동교 교장으로 취임하지 만五년만에 처음으로 안식년을 맞이하야 오는 二十七일 오후 령시四十분 경성역발열차로 귀국의도에 오르리라는데 이사회에서는 十七일 전원회의를 열엇설립자 외 동교후원회 이사

고 또 금二十일 오전九시에는 동교에서 동교발기로 전별회를 열리라한다。

동교장은조선에온지가 이미二十년이나되엇고 이화여자고보로소학교 一년에 취임하야 五년에 교장으로 승임하면서부터 더욱동교의 학장과 내용진흥 교육발전에 지지 않는노력을 하여오다가 이번 안식년귀국의 이익에 이번귀국에 동교각방면에서는 어모가지로 크게기대를 가지고 잇다고한다。

귀국동안에는 베제고보교 교장 아펜셀러씨가 대리를 보게되엇다한다。

◇사진은 귀국할 「저처」교장

日本特務機關襲擊의 赤色테로陰謀發覺
重要書類를 奪取코저 計劃
當局은蘇聯에抗議？

【신경동경전보】 포그라니치나야 十九일발전 포크라니치나야 특무기관은 지난 三월에 거처 최근쏘비에트 적색테로 사건이비밀히 하야 공산주의에대한 유혜분자를 매수하야 특무기관을 습격하야 중요 도당의 암살사건에 빌려되어의외관의 아경원 백계노인 리스트파ー三월二十일에 포크라니친나야 특무기 암살하는사건이 각장되엇는데 그런 은그것은 적색테로의 행동인것이 판명되엇다

그는 작년 三월에 「그로데꼬」게 에레푼」탑 체포하야 취소한결과 쏘비에트 ○○장한 국 기관을 매수하야 폐、우、른과 취체소사중과 주임 「카시민」의 변종하고 가장하야 그대로 역할을 하여 이정부 지나가는 「포구라니치나」한 사업 연락이되엇는데 외 연락된것 포그라니치나야 특무기관 잡입한 「포구라니치나」

그의 자백에 의하면 지에레푼은 「포크라니치나야」에 부터 암살명령을 받어가지고 三월二十일에 북철판사에 잠입하야 전기 「큐도파도프」를 독기로써 무부기라를 구타참살케한후 장화、양복바지、시계등을 탈취하야 도주하엿섯고 또西월三일부터 동十一일에 금하여 서는 「테보린」월八명과 가치 「포쿠라」특무기관을 습격하야 중요

서류를 탈취하야 가지고 「그로데꼬」방면으로 계획을 세웟으나 실현치 못하고 다시 제二차 습격계획을 중비중체포된것이라한다

또그의 자백에의하면 「그로데꼬」로부터 「포크라니치나야」 영사관에 파견되어잇는 「카르트카」가 포크라니치나야의 지위를 받은 ○○○을 통지하고 거로 모든쏘런공작에 대한 유혜분자를 암살 배제하기에 전념하야 직접주도하고잇는 사실이 판명되엇다

특무기관은 본건을 중앙에 이송하야 쏘련의공연한 폭행에대하야 엄중한항의를 제출하기로되엇다。

三名이死傷
방어회먹고
寧邊의생선中毒

【신의주지국전보】 영변군 영변면상동(寧邊郡寧邊面上洞)二二九 우편소장 영목태랑(鈴木太郎)의 가족四명과 재판소서기 금야三랑(金野三郎)(二)은 十一일 방어(魴)회를 먹엇든바 十三일에 앙리 그의 장녀는 생명이 위독 하고 그녀도 발병되엇으나 생명에는 이상이 없다고한다。

평북도경찰부에서는 방어의 중독은 八시간내에 중독가 보인으로 보아 중독된 아닌것같고 다른 원인이 잇엇는것하다고 한다。

그러한 그들은 광의가료불하엿으나 十七일아침八시경 四녀준자(春子)는 죽엇고 안해의 생명도 위독하다고 한다。

봉지휴

부라질 공화국에서는 이번에 새로 헌법을 제정발표 하엿는데 이 혼할 단연금지▲뒤늦게 장부명에를 부르짖고 우스수 주둥나면 처리 이혼장이 없어지는 아무데하고는 아주 정반대▲자유로운 새세계를 찾아기며 남녀두여든 각국의 청춘이 민、대담하게들의 곧이 쇠까지 같이 이생활 뒤어매여 놓앗으니 뿌녀더 기운이 적이 저상하진 저▲동경재판소에서는 달담한 연애결에였은 헐매를 나아 놓다가 귀치아하고 죽여 버린 젊은 어머니가 잇엇다▲검사의 주상같은 조영한 론고에 가로되、일본여성이 옛어진밥 벗으라고 버린적거리는 그바편에는 정조와 모성에의 양대요소가 점점없어져 간다▲이론형이하야 일어나는 범죄가 늘어 가는것은 유감천만、젊은 부녀자에게 경고켬 또는 사회에 반성을 재촉 할겸 엄벌주의를 취한것이라고 설파▲말등한 예욕의 책만 빼아먹고 귀찬으니대머니」의 사명을 잇으라는다대여성들▲가슴에 손을대고 세번생각하실일 ▲세브란스에서는게복수술한자가 다라나더니 이번에는 대학병원에서 정신병자가 탈주▲성한 사람 대신으로병자가 날뛰는 판이가▲신의주사는 헌모는 돈 안 꿔어준다고 제친구를 갈다하고 변경은 一금 三원야를 차용▲이제 돈없으 차용하는데도 예사수단으론 되지않는 모양。

★그날그날★

◇七月二十日(金曜日) 陰(大六月九日) (壬辰)

日出午前五、二六 日入後七、五一 月出前一、三〇 月入後二、五一 (滿潮) 仁川前一〇、一五 後一一、〇八 釜山前一、〇五 後一、四五 鎭南浦前一二、一五 後一二、二五

法律의일로는무엇이고解得됨 景品付로空前의大特賣

法律萬能의現代、一家一冊必備의實書！

日常百般 即時解決 法律百科大辭典

◇◇本書는縱六寸、橫四寸五分、厚一寸五分 總紙數 約七百頁되는 洋裝箱入大冊也

定價三圓五十錢 (送料二十七錢) 時期限(金引換은二十七錢) 本書는特別大廉價 單只壹圓 (送料三十七錢 代金引換은四十七錢)

▲이實典一冊이면辯護士나六法不要▲어더한難問題라도即席에解決하게됨

◇本書는民衆法律의大家가心血을다하야 法律 相續 戶籍 男女 民事 刑事 其他 一般法律上의 諸問題를 다일일이詳述하얏스며 실로 自由自在로 解決할수잇는 大寶典이다

大景品 日常便利 百科辭典 諸類 書道及書式 文의書法 一冊 無代呈進

東京市神田區小川町一番 積文堂特賣係

皮膚病一切에 外用常備藥

더위와皮膚病 水와魚！ 皮膚病驅逐에 「一二三」

一二三 主効 버짐 음당습진 무좀 습진 땀띠 머리헌데 火傷 凍傷

定價 二十錢 三十錢 五十錢 一圓 二圓

東京市神田區明神下 本舖 岡天然堂

全國到處有名藥店에잇음

耳鼻咽喉外科專門 釜山港草梁入口 永濟醫院 電話二六三一番

돈버는大王 리ー도式 膨張機 五合의米가八升의米菓子가된다

大阪市 見龜製作所

값싸고질긴 태극성광목

便秘

緩和한作用을가진것이特徵이오、服用後六時間乃至十時間의 軟便을排出함、그러고、퍽少量으로奏効하고、無味無臭한故로、婦人小兒들도嫌忌치않고服用할수잇을것이다。

또 腸에刺戟을주지아니하므로腹痛、病痛一感은裏急後重等과같은副作用없고、過敏性의患者에게도無痛한下痢를일으키고、또習慣性을만들지않는點에서常習便秘에應用하야便利하다

最優良國產品으로서價格이極히低廉하다

定價 十錠 二十錠 一圓五十錢 二圓五十錢

ラキサトール錠 라키사토ー루정

三度의食事 一度의便通

製造元 株式會社 塩野義商店 大阪市東區道修町 東京日本橋區本町 京城府黃金町

어름 그리운山·그리운바다

太平洋과 三防幽峽 【其十四】

李 箕 永

一

江山의勝景을 하자던天下의名勝에 周遊한然後라야 云報할責任이잇다하든지 모르나, 그리운山 그리운海이라면, 반지 그러치도 아니하겟다。비록 名勝은아니라도 自己의主觀으로 印象깁게잇지 못할것이라면, 우리는 어디든지 거기를 憧憬할수잇는것이다。

이러한意味에서 나는보지않은 金剛山을 말할수도 없고, 國境八景이나, 明沙十里를 말하고 싶은것도 아니다. 나는 나의固陋함이 미칠바로서 가장印象깊고, 그리워하는 두어곳을 적어보기로 하겟다。

그러나, 事實이 말하면 朝鮮의山川은 貧弱하다。

山에는 나무와 못을 꺼야하고

蒼鬱한 靑山과 茂林을 靑葱하야 於是乎 江山의 美景을 이룰수잇다. 그런데 朝鮮의山에는 나무가 없고, 내에는 물이 없다. 이따위 사람들이 수없이 만치 山川도 수척하고 빨개벗엇다. 實로 이어찌 慨歎할 없어랴?……

나는 더구나 메바린기로 有名한 天摩山에서 자라나다가 昨年에 비로소 玄海灘을 건너서 그곳의 鬱蒼한 森林과 豊富한 綠水를 볼때 未嘗不 驚歎하기 마지않엇다. 사람은 밥만먹고도 못산다。(밥이 勿論 첫재條件이지만) —動物은 空氣를 呼吸하야 산다 하지않는가? 그러고 空氣는 草木에 깁이 마시다는것도 山洞가 豊富하지 못하다하지 않는가? 所謂「浩然之氣」를 養하다거나「大氣」를 呼吸하는데에서 무엇을 求할수잇겟는가?「人傑은地靈」까지는 말라도 마시는 정도밖에없을것이다。

그런데 거기는 到處에 靑山이요 綠水가 흐른다. 나는 瀨戶內海를 밟에지낫기때문에 明石, 須磨의 靑山을 못보앗거니와 車窓밖으로 내다 보이는 東海道의 기름진 風光이 明媚한 山海를 瞭望하는 것은 오직도 오히려 心腸을 慌홀케한다。

東京에건너간 그이듬해여름에

그러나 나는 第一回大旅行의 어파 어떠한 光景을 걷고나서「東京」에서 第一回旅行船으로 보넨「弘濟丸」을 芝浦에서 잡어타고 景勝地인 伊豆半島의 縹渺한 黑潮를 바라는 活火山을 쳐다보며 太平洋 沿岸을 돌아 나올때 未曾不大洋의 壯觀한 光景을 平生 처음으로 느끼엇다. 그때 暴風雨를 만나서 驚魂喪魄하기도 하엿으되, 그中에서도 오직 水光이 接天한 無邊大洋에서 山같이 몰려오는 波濤와 싸우는것은 陸地사람으로는 보기어려운 壯快하기 짝이없는 場面이엇다. 그때에 同船한 同胞中에서 東京本紙를 보는이가 잇다면 나의이말에 누구나 共鳴할줄믿는다. 一週日의그때航海는 그야말로 靑山萬里一孤舟의 感이엇엇다。

二

太平洋을 그리운물이라면 나의 그리운山은 아마도 三防幽峽을 말할수밖에 없다. 太平洋을 말하다가 三防幽峽으로 옮기는것이나 무도對照가 엉뚱한것같으나 大洋에서 壯嚴한 偉大美를 느낄수잇다면 幽峽에서는 險阻한 自然美를 맛볼수잇다. 實로 三防幽峽은 一幅의 天作 風景畵이엇다. 그때는 봄철이엇다. 나는 그때도

雜誌社일로 成興을갈적

이다. 따사로운 봄날에 二等車를 탓다. 그전에는 늘 夜間車를 탓엇는데 그날은 첨으로 晝間車를 놓쳣기때문에 아침車를 타고갓다。車가 鐵原을 지나서 次次高原이어서 그런지, 京城보다 나무人企이 만은것 같다。

新高山, 南邑, 三防 幽谷을 向하여 다。……新高山、支川만 런넬을 뚫고 나가서는 奇岩怪石이 重疊한 골짜기의 溪谷을 건느다 溪谷건너서는 다시 런넬을지나고、런넬을 지나서는 다시 溪谷의 溪谷을건느는데 그가운데 淸淨한 綠水는 兩岸의 絶壁을 싸고 구비처 흐른다. 거기에 點點히 붉게핀 진달래꽃、푸른솔 거문 바위…… 今時 왼편으로흐르다가 가루 비치는 물이 바른쪽으로 흘러가고 다시 溪谷을 끼고 왼쪽으로 흐른다. 한줄기시내는 이러케 갈팡질팡하면서

幽邃한 洞壑을 뚫고 나가는데

나는 二等車안의 자리가 텅 비엇음을 奇貨로 東西南北하는 이 窓가를 보잡으라고 이리 닫고 저리닫기를 數없이 하엿다。…… 더구나 細雨가 가리는속에 溪谷을 씨처나린 山容이 새로웁을 따러 진달래꽃은 푸른 솔과 對照되어 더욱 연연히 붉게 되엿다— 어떤 가지에 點點히 붉은듯— 수풀은 이루어서 옛기로 옥어진물! 淸流가 굽어쳐 흐르는 내로 휘휘싸 絶壁에 瀑을 놓아 나간 진 景概야 말로 참으로 무엇이라고 形言할수없이 絶景이엇다.

그러나 三防幽峽은 杜鵑花떼만 아니다. 鮮少한 곳곳이 深谷으로 여름에는 瀑布가 떨어지고 가을에는 丹楓, 겨울에는 白雪의 이行客의 발길을 멈추게한다. 三防의 命名은 —여름에는 장마에 막히고, 겨울에는 눈에 막히기때문에 三防이라한다는 말과같이, 三防은 地勢가 險阻함에따러서, 天候도 非常한 모양이엇다.

내려다보면 曲曲溪溪한 石壁 처다보면, 屹立한 山峯에 樹木이森森하다. 그때는 봄철이다. 樹林이우어진속에, 새순이 퍼려케 피어나는것은, 마치 千兵萬馬가 陣전치럼 新生에 躍動하는것 같엇다. 山容우러우에는 늦은안개가 어리고, 細雨는 如前히溪谷에 뿌리엇다. 나는 그때 어떠케도, 이能하면風景에 感激하든지 釋王寺驛에서, 葉書를사가지고 나의 感見되는 I 氏에게 엽서쓰려서 寂寞文을 써보내었지 잇엇다.

—끝—

一九三四、七—

世界最古의 劇場을 發見

【로마發聯合電】 過般來 地中海中의크리—트島에서 調査中이든 伊太利考古學調査隊의 發掘者따르디씨에게서 世界最古라고 推定되는 劇場의 遺跡을 發見하엿다. 發掘物은 紀元前千六百年代의 有名한 크리—트王朝마이노스宮殿의 길에 建設되어잇든것으로서 宮殿파는 地下道에依하야 聯絡되어잇다. 그러고 페르너엘發掘을 하든당시의 王이 宗敎的性質을따어 演劇에 몸소 出演하는 興味잇는 多數의遺物도 發見하엿다한다. 이밖에 同劇場은 當時의 女子가 西班牙의 그리아날그대로의 鬪牛士가되어잇는 珍奇한 壁畵를 發掘하엿다.

科學講座 (六)

地球創生과 其後

發明學會 金 容 瓘

【新生代의前半】

哺乳時代

그다음 다시 평화시대가 옴에 이르러서는 중생대에 그처럼 번영(繁榮)하든 파충류(爬蟲類)가 그그림자를 감추게되고 포유동물(哺乳動物)즉 수류(獸類)의 전성(全盛)을 보게되엇고 땅에는 여러가지 활엽수(闊葉樹)와 섞이어서 번무(繁茂)하여젓습니다. 그리고 코끼리(象)의 조선(祖先)도 나오고 말(馬)의 조선도 세상에 나오고 봉우리는 도리어 바다밑이 되엇습니다. 이것이 곧 신생대(新生代)의 전반(前半)즉 제삼기(第三紀)시대엿습니다. 제삼기라함은 고생대(古生代)의 대신으로 제일기(第一紀)라하며 중생대(中生代)의대신으로 제이기(第二紀)라하든 명칭에 의한 명칭이올시다.

그런데 그후 몃해 잇지내는데 기어코 어디가생기고 서 코끼리에는 가운데 털이 만이 크게되어 따라한 곳이 몹게된때에는 세상이 또다시 매우 변동하라지마는 코끼리는 아직 그 엄니(牙)가 자르며 땅이발에는 다섯개의 발구락이 붙어 서잇엇습니다. 그러고 산과바다의 대세도 지금과는 매우 달러서 현재의 말라야산맥의 놉은 곳이 되어서 여러곳에 바다가 넘처다며 화산은 움시기고 큰산맥은 여러곳에 솟아오르고 오래된 산지(山地)의 잔해(殘骸)도 다시놉이 융기(隆起)하엿습니다. 이처럼되어 드디어 신생대의 후반(後半)을 제사기(第四紀)로 옮기게 되엇습니다.

【人類時代】

이시대의 최초에 잇어서의 가장 큰 변동은 북반구(北半球)의 한큰부분이 빙하(氷河)로 덮이어서 기후가 몹시 한랭(寒冷)하게되엿음이 올시다. 그결과 종래 뛰어다니든 수류(獸類)도 차차 남지(暖地)로 피하야 혹은 멸망하고 혹은 산속에 숨어엇게되엇습니다. 이에 갑작이 비상한 세력을 떨치든것은 네발대신으로 두발로서고 손으로 ……

다。이 생길는지도 예측할수 없습니다.

劇硏三週年記念『講演과朗讀의아—벤드』

週間短篇

S夫人 그後이야기 (上)

혜영에게서는 여전히 편지가 왓다. 편지마다 언제 그런일이 잇엇느냐는듯이 자기의 남편을 그는 싸고돌앗다. 그는 퍽 사랑하엿다가 나를 사랑하엿다가 그는 자신(自身)의지도 모르겟다기보다 서에 갈때나 봄에 돌아올때나, 자기에게 키스를 강요하다든가—계집이란 어제와 오늘이 이러케 달라지는것이까 하고, 그가 혼자서 날맛들때는 그저, 쥐뿔이 아니고 몰래 그사이를 고리 어쩌고 절렴한 그림부터 싸고 도는데 엇다. 그에게 돈이 좀 잇엇으로 번영이 넘이라면— 혹시 애정이 생겻지 모른다는 혜영이다. 이제 감사이 사회에 아무 존재도 없는 한 부르죠아청년을 모이 치켜들고 나서는 선사가 아름다웟다. 자존심이 비웃어이 그중의 하나일것이다.

「신생활」저는 행복스럽습니다. 이정도의 행복이 되려 저로 된다면 얼마나 큰 행복일지도 모르지요」

하여간 그는 혜영의 편지를 읽을때마다 다행히 여겻다. 아무 派閥없이 한 평범한 안해와 남편으로서 일생을 平安히 살아가라 안해와 애인을 얻은 문철의 가슴에 고속으로 기원도 하엿든것이다.

봄, 여름, 가을—이렇게 세월은 자꾸 흘러갓다. 누런나엽이 서울거리에는 솔솔 날리기시작하더니 날어도 지는줄모르게 다지고 비룡같은 눈송이 펄펄 날리다. 눈이 나리다 녹다가 또 쌓이고하던 어느날이다 그는 동경에 잇는 어떤친구로부터 편지한장을 받앗다. 자기주소도 모르고 사연이 적어서는 두어장이나 조이 쪽지가 봉어넣어 다니다가 인쇄소엇는 P 라는 친구가 전해준것이다. 자기와 어린것을 버리고 살아지지 삼년째나 지어들무럭 행방소사 모르던 안해가 동경에 나타낫다는것이엇다. 언젠가 안해를두고 쓰던이 잇는 시를 보고 처음에는 기억가 미언가 햇다가 이번에야 모든것을 알고 어떤곳에게 사모하든 정을 돌려 홧김도 아이 하든 편지엇다。——그러나 그는 그편지이야기를 성순에게도 하지않앗다.

승에 서리워잇섬 서름은 궁게궁게 풍처진대로 무르 뵈이 다시 들어왓다. 그해 이른봄에나 그는 비로소 신범같이나 볼까 말까한 일자리를 얻엇다. 그전도 스트라이를 안 일으킨다는 세사람의 보증인이엇다.

때키한 공기속에서 일종일 시달리다가, 밤이 반쯤바질 나는 문을 열고 밖으로 나올때는 살엇는가 싶엇다 더웃이 그냥은, 상반기 헐값같은 받어, 찬 날이라 내 일하야할일이든다. 녀나간주머니속처럼 마음이 허전한것도 모르는바 아니다. 오래간만에 억숙하나오던 라, 보정 궁하바 귀 취 듣엇다.

대스구멍같은 궁둥이를 빼지나오다가, 신전, 십오전씩 주나, 조그마 장난감 빼와 비묵기를 사엇다. 그러고, 희짓한 파자한봉을 사들고는 생기잇게 집으로 들어왓다.

방안은 피피하엿다. 성순이는 어디 놀러나갓지 하고 장지를밀다닫고 그는 성금 들어섯다. 성순이는없고 웬, 대바란 꼬마의 뜰논 안쪽에 하란 양발까지신고, 단발한 계집아이가, 조고만 상자를 빼끄는 색색끼가 들어잇다. 머리맡에는, 파자봉지가 두개가 놓여엇다.

안집아이가 하고 얼굴을 들여다 보았는, 머리가 동해지는것을 깨닫앗다. 성순이엇다. 옷은 딴 옷이엇다. 얼굴은 성순이엇다. 새끼손가락에는, 뻘간 산호가박힌 반지까지 끼고잇엇다. 꿈이아니것을 다지고야 그는 그옷을 그런 마저보앗다. 파란빛 댕기바 말장 부사건이다. 그러고 양말도, 인조견이오, 얼굴에는 분까지 잇엇다.

그는 어찌지 꿈이가 싶엇다. 그러나, 꿈도 아니엇다. 다시 방안을 살펴보니, 영산에 하잇이 눈에 띠엇다. 구석에는, 조꼬만 구두를 나란히 위해 놓고, 구두상자를 버리고는 잠이 든모양이엇다.

「예, 성순아.」

성순이는 흠시 不調한지 아모 말이 없다. 그는 또한번 불럿다. 그래도 일어나지 않아서 가벼히 상체를 잡아흔들엇다.

「예 성순아, 아빠왓다 그만일어나거라.」

그래서야 눈을 뜬 얼이 뜨고·아버지를 처다보더니,

「아빠오셋수。」

하고는 마치 어른들다르듯 사뭇이 이어엇다. 그러고는 위선 옷이고, 모자, 구두, 양말, 파자 한가지 다처보는 그치더니, 상그레 웃는다. 그는, 성순이도 그러케차려 노니까, 제어미가 밉지않아는 만큼 귀엽다고 생각되엇다. 조마보면 차려 논다면 아모라도 그냥 지나지는 않으리라하엿다.

(挿畵 鄭顯雄)

續朝鮮最近世史 146

歐米列强과의 外交關係 【卅六】

五、…對露關係

李 瑄 根

第六款

(一) 朝鮮內에잇어 露國人民及財産에對한 法權은 露國領事及其相當한 官憲에게 有함. 代理官에 委任하야 領事及代理官은 朝鮮官憲의 干涉을 받지않고 露國人民及外國人民間에 生한 一切事件을 審問判決함.

(二) 朝鮮官憲及朝鮮人民으로서 朝鮮內에잇는 露國人民에對한 一切의 告訴, 告訴及訴訟은 露國裁判所에서 露國法律에 依하야 審問判決함.

(三) 露國官憲及露國人民이 朝鮮內에잇어 朝鮮人民에對한 告發, 告訴及訴訟은 朝鮮官憲이 朝鮮法律에依하야 審問判決함.

(四) 露國人民이 朝鮮內에잇어 罪科를 犯할時는 露國官憲이 露國法律에依하야 判決處分함.

(五) 朝鮮人民이 朝鮮內에잇어 露國人民에 對하야 罪科를 犯할時는 朝鮮官憲이 朝鮮法律에 依하야 判決處分함.

(六) 이미締結된 條約이나 本章程或은 將來協商에依하야 締結될 條約에 違反되는 罰金或은 沒收에 該當하는 露國人民의 罪科는 그 露國領事가 이를審問判決하되 그 罰金或은 沒收物件은 朝鮮政府의 收入으로함.

(七) 慶興府에잇어 朝鮮官憲이 此를 押收하는同時 露國官憲에게 通知하야 그 最終的決定이 有할時까지 保管함. (第八條의 規定을 適用함.)

(九) 朝鮮人民으로 本國의 法律을 犯하고 朝鮮內에잇는 露國人民의 家屋, 倉庫或은 船舶內에 潛伏하엿을時는 露國領事가 朝鮮地方官憲의 通知를 受하야 此를 逮捕하야 地方官憲에 引渡함. 但朝鮮官吏는 露國領事의 許可를 經由치않고는 露國人의 家屋에 侵入하지 못함.

(十) 朝鮮官憲은 露國人의 承諾없이 露國船舶에 侵入함을 不得함.

第七款

朝鮮及 朝鮮의 沿岸貿易船은 露國江口航行의 權利를 有함. 但 朝鮮兩國官憲은 兩岸의 交通及 兩國航行의 秩序를 保存키 爲하야 後日 船舶及 河川의 警察에 對한 特別規則을 協議決定할것.

第八款

(一) 本規則은 露語及 淸韓語로 此를 記錄함. (以下 第二條까지는 用語에 關한것이기 省略함.)

第九款

本章程은 調印日로부터 向後五年間 効力을 有함. 兩締盟國의 一方이 本章程을 改正코저할時는 本章程 有効期限의 六個月前에 다른 一方에 通知함事. 但 兩國中 어느便에서든지 이에對한 通知가 無할時는 本章程은 다시 五個年間 有効期限을 生하는것으로 認定함.

西紀一八八八年 露曆八月八日
朝鮮開國四九七年七月十三日
於京城
「위—베르」 印
趙秉式 印
「피—니」 印

新刊紹介

▲한글 七月號 제이권제칠호 朝鮮語學會 發行 신한생 제군에게 朝鮮語讀本으로 本卷一중 조선하는 감정이 엇드 他 定價五錢 發行所京城府花洞 一二九朝鮮語學會出版部 振替 京城 一〇三六番

라디오 今日프로 日曜金 JODK

晝間部

▼午前十一時五分 氣象通報, 料理法日用品時勢, 京城府社會課
▼正午 時報, 今日프로그람發表
▼午後零時五分 西鮮俗謠 (一)愁心歌(二)山有花(三)山念佛(四)開城歌 金彩淳 安稀紅
▼零時四十分 뉴스
▼二時 趣味講座 飮水와 肺病 李智光
▼四時 뉴스, 經濟紹介事項

夜間部

▼六時三十分 童話劇 月宮에서 떠러진토끼 一幕 朝鮮兒童藝術硏究協會 指揮 尹喜永 音樂效果 同會效果部

配役
月宮토끼…… 朴貞하
형토끼…… 李明淑
아우토끼…… 李星子
王토끼…… 劉成恩
토끼一…… 南宮鳳順
同二…… 全淑弘
同三…… 趙時子

▼六時五十五分 라디오學校 古代朝鮮의奇蹟(二)
▼七時三十分 뉴스 天氣豫報 李元珪
▼八時 講話 朝鮮民俗藝術에對하야(二)
▼八時三十分 京畿俗謠 (一)배다라기 (二)바위타령 (三)將棋打令 (四)興打令 (五)개타령 宋石蘭
▼九時 沈淸古談 甲午烈女(三) 崔自植 朴寅成
▼九時三十分(東) 時報
▼九時三十一分 音樂 鐘山會 玄琴 李彦직 洋琴 李承漢 奚琴 池龍九 短簫 洪斗星 細笛 趙敬福 長鼓 李章夏
▼十時 뉴스 氣象通報 明日프로그람發表 뉴스再放送

第一放送

▲午前六時(東)ラヂオ體操▲六時三十分(東)基礎英語講座(四十五)▲午後零時五分 義太夫 日記(引窓の段)▲二時 講座(二)▲六時(東)管絃樂▲六時(東)ラヂオ・オーケストラ▲六時二十分(東)コドモの新聞▲六時二十五分(東)基礎英語講座(三十)▲七時三十分(東)講演 について▲八時(東)漫談▲八時五十分(大)少女歌劇 寶塚少女歌劇「燈作」(岸田辰彌作 高木和夫作曲)(寶塚少女歌劇團生徒)

明日프로

▲午前十一時五分 氣象通報 料理法 日用品時勢▲正午 時報 今日프로그람發表▲午後零時五分(大阪) 奏樂—快谷演藝所로부터中繼—(大阪市音樂隊)▲零時四十分 뉴스▲二時 野球試合實況 立教對全京城—京城球場으로부터中繼—▲四時 뉴스 經濟紹介事項▲六時三十分 童話 曰뜻나사람(李定鎬)▲六時五十五分 라디오學校 古代朝鮮의奇蹟(三)(李元珪)▲七時三十分 뉴스 天氣豫報▲八時 講話 朝鮮民俗藝術에對하야(三)(宋石蘭)▲八時三十分 俗謠 (金玉葉 李錦紅)▲九時 朝鮮이야기(金裳蓮)▲九時三十分(東)時報▲九時三十一分 唱劇(王顯鳳)▲十時 뉴스 氣象通報 明日프로그람發表 뉴스再放送

小兒良藥

樋屋奇應丸

貴愛兒를爲하야 엇지지못할이藥効

大阪 樋屋奇應丸本舖

땀띠·진무른데 シッカロール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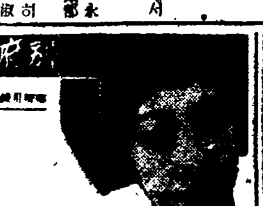
第一의 撒布藥

各藥店에 잇음

오인

各藥店에 잇음

別府淋藥



これに氷り〳〵 別府に決めた 淋藥あらたか 初笑顔

說明治療書進呈

發賣元 別府市 岩里天然堂

朝鮮劇場 自首犯

第二回秋冬 東京問屋 朝滿巡廻百貨大見本市

會期及開催地 昭和九年 康德元年 京城 七月十九日 二十日 新京 八月二日 三日 元山 七月二十二日 二十三日 奉天 八月六日 七日 龍井 七月二十七日 二十八日 平壤 八月十一日 十二日

主催 海外通信社 東京·神田錦町

世界의産金趨勢【一】

産業

金은 人類가 가진 金屬中 最古의 것의 하나이다 大量 自然狀態로 遊離되어잇는 金屬은 金以外에는 거의 없는까닭이다

그리고 그産額이 많지않은것과 他의 金屬보다 優越한 여러가지 美點을 가지고잇는等의 理由로古代로부터 人類에 貴重되며 高貴한 裝飾用으로 或은 富의 對象으로 貴金屬의 最高峯에 잇다

大古에 金을 産出하든것은 主로 亞細亞와 亞弗利加이엇다 中世에는 西班牙, 及우랄山의 兩地가 主要金産地로서 이름이잇엇다 그러나 金의 供給이 顯著히 潤澤하야지고 貨幣로써 一般에 使用하게된것은 新大陸發見後에엇으며 一八二○年頃以後에 英國이 金本位制를 採用하게됨으로부터 貨幣의 王座를 占하게되엇다 十九世紀의 半까지 主要産金地로 이름이잇게된것은 南米及中米의 金鑛이다 後一八四八年에 캘포니아에 金鑛이 發見되고 다음으로 一八五一年 「오스트랄리아」에 一八八五年에는 「트란스발」에 一八九九年 「아라스카」에 金鑛地가 續續發見되야 以來金의 探鑛은 顯著히 增加되고 金의 世界産額은 昭和八年에는 二千四百二十八萬 「온스」(七九三噸)을 豫想하게되엇다 이것을 金額으로보면 法定價格時勢(一 「온스」 四十一.一圓强)로 約十億四百萬圓이다

二、世界金鑛業의 近年趨勢

近年 世界의 産金狀態를 보면 大正四年에 九億四千萬圓 約七○八噸을 産하고 有事以來의 最高記錄을 示現하엿는데 其後 漸次減産되고 大正十二年以後에 逐年增産의 經路를 取하고잇다

그리고 昭和五年以後는 世界的 經濟不況의 結果 金鑛業이 有利하게되고 金의 偏在及 이에伴한 國際的金爭奪戰의 結果, 大多數의國은 或은 金本位制를 放棄하고 或은 産金增加의政策으로써 金의保有及增加에 腐心하야 金의價格은騰貴되어 主要産金國에서 金鑛業이 旺盛하게되엇다 그結果 世界의産金額은 急激히 增加하게되엇다 다음二表에 揭載한바에 依하야 그 消息을 알수잇다

世界金産額年別表

年別	産金額	比例	産金額(價額)
大正十四年(自一九二五) 昭和四年(至一九二九)	六○四、四	一○○、	八億四百五十一萬圓
昭和五年(一九三○)	六三九、一	一○五、九	八億三千六百萬圓
同 六年(一九三一)	六六○、四	一○九、四	八億八千百萬圓
同 七年(一九三二)	七○四、六	一一六、四	九億九千二百萬圓
同 八年(一九三三)	七五三、○	一二四、七	十億四百萬圓

註 八年의 産金額은 推定으로 比例는 大正十四年─昭和四年五個年平均産額을 一○○으로 하고 比例한것이다 右表와같이 增加된結果 昭和八年의 産額七五三噸은 거의 確定的이며 有史以來의 最大記錄이다

消費組合이 우리에게주는利益【四】

韓秀龍

一次 過失로 豫算以上의 買物을 하야 어떠한商人에게 債務만지면 元來農業하든사람의 收入에는 限度가잇는法이라 그는終身토록 該商人에게 얽매여지내게되는것이 常事이다 따라서 消費組合은 모든販賣를 直接으로하며 或時不得已한 事情으로 外上을 許치아니치못할 境遇에는 附設한貯蓄及金融機關을 利用하야 必要한 金額을 暫時融通하는例가 많다

四、消費組合은 失業한 組合員에게 職業을 紹介한다

手足이 唯一의財産인 無産大衆을爲하야는 職業이 오직生命의源泉이오 個人을爲하야서나 社會를爲하야던지 失業問題처럼 重大한 難問題가 없을것이다 우리가方今 經驗하며 目睹하는바로 이에對答할 必要가 없을것이다

벌서 「로취데일」組合도 失業者의 必要에依하야 「解決」 職業을 紹介하기爲하야 「耕地를取得하야 失業한 組合員及 不足한賃金으로 生活에 困難을받는 組合員에게 職業을紹介하리라」고 하엿다

이理想이 亦是一見空想에近하나 其後 「로취데일」組合及 大規模의組合들은 直接으로 小規模의組合들은 中央卸賣組合會를 經由하야 間接으로 實現하야오는 바이다 以上에도 累述한배여니와 有名한 「맨체스터」卸賣組合會는 이 理想을 거이 遺憾없이 實現하야 經營하는바 工場이며 農場이 不少하다

그런데 最近의 顯著한 工場에關한 統計를보면 一九二五年에 其工場數가 百十一에 使用勞働者數가 八萬餘名을 算하엿고 一九二九年에는 全國消費組合들이 使用하는 人員이 實로 二十四萬大衆에 達하야 非組合員뿐만아니라 無數한 貧民들에게 職業을供給하다고 하엿다 (지-드著「英國의 協同組合」參照)

五、消費組合은 住宅難에 苦痛받는 組合員에게 衛生에適合한住宅을 供給한다

우리朝鮮과같이 아직 大都會가 그다지 發達치 못한곳에 잇서서는 一般民衆이 住宅難을 그다지 切感치아니하나 人口가 稠密하고 大都會가 發達한곳에서는 住宅問題가 衣食問題다음에 重要한 大問題이다

이緊急하고 또重大한 問題를 解決하기爲하야 벌서 「로취데일」組合은 그組合員에게 「家屋及社會生活의 改善을 目的하야 互相扶助하려하는 組合員에게 住宅을 購買或은 新築하여 提供할일」이라고 聲明하엿다

이聲明이 亦是決코 死文으로만 남아잇지아니하고 벌서 一八六七年以前에 組合員을爲하야 數個의 住宅을 建築하엿고 그것이 三十二個에 達하엿고 一八六八年報告에 依하면 二五○、○○○佛郞을 投하야 「로취데일」附近에 衛生에 適合한 一劃住宅을 建設하다고하엿다 (佛蘭西의 有名한 消費組合史參照)

六、消費組合은 組合員이 病에 呻吟하거나 不幸히 이世上을 永訣할時에 그들을 救援하며 또 死後에 그들의 遺族을 保護한다

이것은 高尙한 社會理想的 精神의 發揮로서 「로취데일組合」은 一八六○年以來로 이理想을 實現하기爲하야 特別한 機關을 設하야 社會에 多大한 供獻을 하여온다. 同一한理想의 産物로는 露西亞에 特有한幼兒와 婦女의保護機關이며 各國에 實例가많은 少年들의 休養機關들을 볼수가잇다.

보라 우리組合主義의 標語인 「各個人은 全體를 爲하고 全體는 各個人을 爲한다」 하는 말이 決코 빈 말이 아니오 世人의 嘲笑와 蔑弄을 받든 消費組合의 理想은 어느程度까지 實現되지 않엇든가? 如斯히 남이 消費組合으로 成功하는이들을 우리는 왜 못할理가 잇는가 우리도 能히 消費組合으로서 우리의 生活難을 緩和하야 적어도 남과같이 살수가 잇음을 確信한다.

正札賣買主義와 共同購入實行
平壤小賣商人의結束

【평양】 평양부내 소잡화상들은 이번에는바 지금같으면 점점 백화점 대책 및 자위책으로 상 四十여인이 조합을 조직하고 공동구입책(共同購入策)과 정찰매매주의(正札賣買主義)를 실시하야 진용을 다시 정제하고 오는 八월 一일부터 실시할터라고 한다.

不二農村에서 海苔養殖計劃
今秋부터實施

全北不二農村에서는 農閑期의 副業으로 干拓地前面에 海苔의 養殖을 奬勵할計劃을 樹立하고 殖銀當局水産技師에 依賴하야 實地調査한結果 同地一帶는 海苔養殖에 甚히 好適한것이 判明하게되어 今秋부터 實行하기로 되고 木浦水産試驗場으로부터 種付場을 設置하야 確立하고 今冬부터 採集하기로 決定하엿다 한다

北靑에蟲災
農家는憂慮中

【북청】 함남북청지방은 여이간 장마로 산북지방은 아직까지 주변의 보기어렵게되어 작사순에 기하고 평야지대는 보리와 감자가 전멸상태에 이르러 일반농가에서는 우려중 요지음에는 뜻밖에 이전에는 조밭에 나타는 충(蟲)이 수일 배에 생기어 베모종이 자라지 못하고 생장에가상

堆肥奬勵해도 金肥使用激增
農業多角化의一例證?

農村自作肥料를 奬勵하고잇는 이때에 金肥의輸入은 도리어 增加되는奇現象!

釜山港의 調査에依하면 滿洲方面에서 大豆粕其他肥料를 今年上半期中에 十二萬餘圓을輸入하엿고 日本內地로부터는 各種化學肥料를 百二十八萬一千餘圓을 移入하야 前年보다 顯著한增加를 보엿다는데 自家肥料의 奬勵에 依하야 必然輸移入이 減少되어야할것이 그反對로 激增된다는것은 從來의 單式農業에서 所謂多角型農業에로 轉換한 一例이라한다

寧遠에藥草組合

【덕천】 산간 오지(奧地)의 평남영원(寧遠)군은 광막한 산야에서 무진장의 약초를 산출하는 농업인데 영원군청에서도 천연약초재취를 크게장려하야 무산농민의 생을 향상시키는 동시에 재취한 약초를 유리신속하게 판매케하기 위하야 동군내의 약초업자백二十여명으로써 약초조합을 조직케하고 지난五일에 창립총회를 열고 역원二十一명을 선정하고 적극적 활약하게되엇다한다.

中和에夜盜蟲發生

【평양】 평남각지에서는 묘관의 피해가 많아 一반농작물의 피해가 농가에서는 금년농작의 대강수확 정도를 크게 우려하는 중이며 중화(中和) 군내에는 혜서가상으로 조밭에 야도충(夜盜蟲)이 생기어 심한데는 전멸상태이오 연해만연되다한다.

進永產組再組織

【진영】 경남진영(進永) 산업조합이 해산되엇다함은 기보한바어니와 지례면(進禮面)을 제한진영면(進永面)독립으로 각동구장 十四명이 창립위원이되어 극력으로 활동한결과 지난十四일 오후三시경에 진영면사무소 누상에서 창립준비위원회를 위원장 남태하(南兌熙)씨 사회로열고 회측제정과 임원선거를 하엿고 이사는 도에 일임키로하엿다한다.

被選된任員

組合長金灃爽 監事姜元錫, 盧楊容, 宋彬宇 評議員金正祚外九人

全南棉花耕作 五萬一千餘町步
今年도大豊作豫想

【광주】 전라남도에서는 면화(棉花) 一억만근을 수확하도록 그재배를 적극적으로 장려한다함은 본지에기보 하엿거니와 금년의 면화작부면적을 조사하여보건대 五만一천五백九十정보라고 하며 이것을 작년의 그것에 비하여 보면 사천四정보의 증가를 보엿을뿐아니라 그생육상태도 가장양호하야 금년가을에는 대풍수를 예상한다는데 이제 도내각군별로 면화작부면적을 조사하여보면 다음과같다한다

木浦府	四五八反
光州郡	一九、六九二反
潭陽郡	一○、七六六反
谷城郡	六、五○一反
求禮郡	五、二三一反
光陽郡	五、六五一反
麗水郡	三三、九三四反
順天郡	一八、五四○反
高興郡	三四、○○六反
寶城郡	一三、八七六反
和順郡	二二、○三三反
長興郡	一一、六五四反
康津郡	一三、八○二反
海南郡	五○、九一七反
靈岩郡	二三、二七二反
務安郡	九○、五○○反

羅州郡	二九、六八三反
咸平郡	二四、九七○反
靈光郡	一八、八八八反
長城郡	九、四七八反
莞島郡	一三、九三二反
珍島郡	三三、○三九反
濟州島	二六、一六七反
計	五一五、九七○反

金善酒造組創總

【김천】 경북 김천군(金泉郡)과 선산군(善山郡)은 금번세무기관독립으로 관할은 세무서 관할이됨을 따라 양군조선주조업자 조합은 종래 군단위의 주조업자 조합을 해산하고 양군이 연합하야 금선조선주조조합(金善朝鮮酒造組合)을 조직하야 지난十四일 오전十一시부터 당지 김천좌에서 창립총회를 개최하고 임시좌장 김동식(金東植)씨사회로 규약심의 역원선거등 회의를 진행하엿는데 역원선거에 들어서는 동조합이 양군 연합이오 선산측에서도 만 공기가 매우 긴장한중 김천군에서는 조합원 수효가 김천군이 절대 다수이므로 투표로 하면 공평을 기하기어렵다 전형위원을 선정하야 공정하게 인원을 뽑으로 조정하여 개선하려고 하엿스나 장시간 토론하다가 결국 투표로 선거하게 되어 개표한결과 조합장 김천주조회사(金泉酒造會社) 부조합장 고기평길(高崎平吉)양씨가 피선되엇는데 고기평길씨는 사정에 의하야 부조합장을 사임하엿으므로 다시 선거하야 부조합장과 평의원 十三인을 선거하엿는데 선거된역원은 다음과 같다한다

組合長 金泉酒造株式會社代表者 高德煥

副組合長 金東植(善山)

評議員 高崎平吉(金泉) 金相五(金泉) 洪學善(善山) 沈殷鍾(善山)外九人

進永에金鑛發見

【진영】 경남진영(進永) 도회의원(道會議員) 송본경일랑(松本耕一郞)씨는 진영면(進永面)과 이북면(二北面)의 경계되는 진영면 신창리(新倉里) 뒤산밑에서 금광을 발견하야 (發見者名義本榮東) 마산광산감독소에서 시험하여본 결과 함유량(含有量)이 배만분지 四十六이나 된다하며 지난十六일에 허가를 제출하엿다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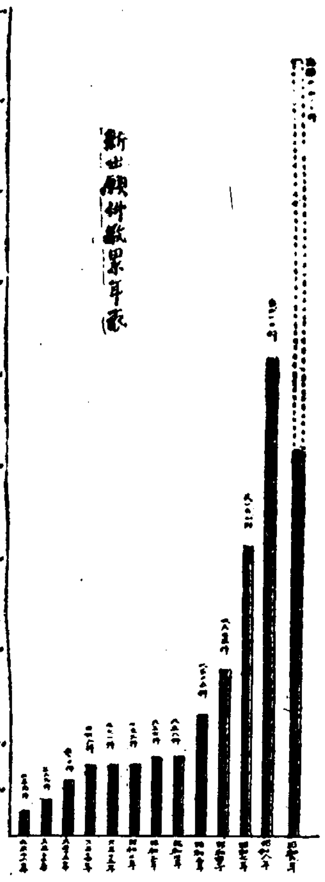
六月中咸南海岸 十漁港의漁獲高

【함흥】 지난六월중 함남동해안 十대어항의 어획고는 十만원에 달하는데 이는 작년 同期에 비하여 가자미철이어서 대부분이 그러한 수입된것이라한다.

數字上으로본朝鮮鑛業趨勢【其一】

朝鮮總督府鑛山課에서 取扱하는 出願의 件數는 近年激增하야 增加되엇다 最近增加되는 原因은 金鑛에 關한 出願에 依한것이다

大正十一年以後의 出願及其成分狀況을 圖示하면 大正十一年以來 昭和五年까지는 出願件數가 漸增되엇다 昭和五年以後는 昨年即 昭和八年에는 昭和三四年에比較하면 六倍强의 激增이며 今年即 昭和九年에는 上半期만으로 昨年全體의 八割의 出願件數이므로 將且今年은 朝鮮初有의 記錄을 지을것이라한다



태극성광목
값싸고 름름한광목

● 天下의 料理屋하시는분! 惡醉 한손님께는 꼿 ノーシン을 ●

深夜에侵入한窃盗 追擊하는主人刺殺

석유회사 출장소 주임을 죽여

平壤山手町에殺人强盜

【평양】 十九일 새벽 령시 四十분 부내 산수정(山手町)에서 강도살인사건이 돌발하엿다.

피해자는 부내 산수정三二번지 「스탠다드석유회사」(石油會社)출장소 주임 송본희대(松本喜代)로서 동사무소에 연접된 사택에서 취침중 침입한 적을 쫓아 가다가 다리 부근을 찔리고 도적의 최후발악에 쓰러지고 만것이라한다. 급보를 접한 평양서에서는 길천(吉川)서장과 소산(小山)사법주임이 현장에 출동하야 범인을 수사중인데 범인은 당초에 절도의 목적으로 들어왓다가 피해자에게 발견되어 도주하는 것을 쫓아나가자 흉인은 단도로 앞가슴을 찔러 직사시킨후 도주한것으로 판명되엇다한다.

피해자는 평소 강대한 체격의 三十四세의 청년으로서 너무나 제어할 무모한 대담에서 비명의 주검을 당한것이라한다.

檢事가出動 現場에檢證

◇지문도 확실치 않으나 證據品은短刀와마쓰크

급보를 접한 평양지방법원 검사국에서는 암성(岩城)차석 검사가 현장에 출동 一시간에 걸처 상세한 검증을 행하엿다. 범인은 아직 현장에 남은 지문(指紋)이 조사도 확실치 않으므로 전연 알 수 없으나 범인이 버리고 간 흉기 단도와 감기예방에 쓰는 마스크 一개를 증거품으로 하야 부내 각 방면과 교통상 요충지에 수사는 개시되엇다.

금일 오후 四五시 되는 이 시체를 내여 해부하기로 되어 범인을 잡고자 진력중이라 한다.

鐵道에轢死 종묘주인이

【송정리】 지난 十六일 광주군 극락면(光州郡極樂面) 덕흥리(德興里) 종묘상 이근식(李根植)(三○)은 송정면우산리(松汀面牛山里) 철도선로를 건너오다가 오후十시 송정역발 광주행三六一호 렬차에 치여 무참히 죽엇는데 시체는 갈갈이 부스러지고 大十여메틀이나 끌리어 현장은 보기에 너무도 참혹하엿다 한다.

棄遣入口에 兩嬰兒死體

【北靑】 구일 북청군 양화에서 가까운 한경선 양화 속후역 사이에 영아의 사체 두 개가 버리어 잇섯다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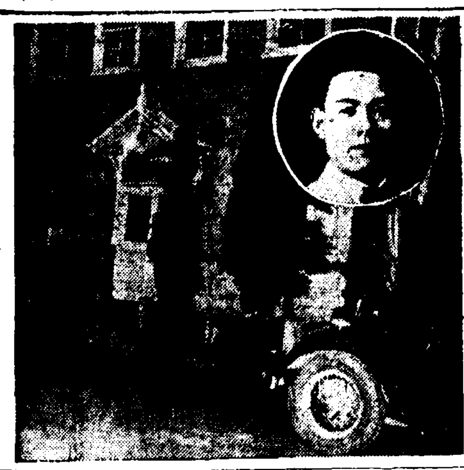
淸州의斷髮者 全人口의九六%

◇七월一일현재로조사 男子總數八萬二千

【청주】 청주군(淸州郡)에서는 파만래 생활개선의 제일착으로 금년 一七월을 목표로 하야 적극적으로 단발을 장려하바 七월一일 현재로 그 결과를 보면 남자총인구 八만 六천 三백 五十八인을 제외하고는 전부 단발자로 전인구의 九六%라는데 아무리 늦어도 금년내로는 군민 전부가 단발하리라한다. 이제 각면별로 그 성적을 보면 다음과 갓다.

◇淸州各面斷髮者

面名	男子總人口	未斷髮者	百分比	位順
淸州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二
西州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二
琅城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二
米院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四
加德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四



平壤 殺人强盜 現場과 被害者

全朝鮮庭球大會

今月三十一日宣川에서開催

本報宣川支局後援

【선천】 선천기독교 청년회(宣川基督敎靑年會)주최 본보선천지국(本報宣川支局)후원으로 제九회 전조선정구대회(全朝鮮庭球大會)를 오는七월三十一일 신성학교(信聖學校)코-트에서 개최하리라는데 각지선수들의 다수참가를 희망하다고한다.

中國人賭博團 九名을逮捕

【이천】 정미소 精米所 직공과 기선회사 汽船會社 인부 등 중국인도 九명이 도박상습범(賭博常習犯)으로 지난十九일 오전三시경 이천서(仁川署)에 一망타진을 당하엿다는데 그들은 부내 청인정미소(天一精米所)의 직공 또는 야구삿회 野口商會 의 인부라한다.

槐山橋着工

【괴산】 기보 충북 괴산면(槐山面)의 괴산교(槐山橋)는 지난十七일부터 공사에 착수하엿다는데 문제중에 잇든 주가이전(住家移轉)문제는 五호중에서 하사하면 승락하엿고 四호는 승락을 아니하고 강경한 태도로 불응함을 하므로 아직 해결의 길이 보이지안는다한다.

【신천】 吳文濤(二○)李錫伊(二○)李明龍(二○)朴敬學(二○)陳群西(二○)崔貴俊(二○)金洪俊(二○)柳日龍(二○)元允榮(二○)의九명으로 그들은 부내 우정(柳町)三二七번지 최명식(崔明植)방에서 허락없이 도박하엿다는바 이것은 그의 처 김미소가 한사해지이면의 일면상이라고 볼수 잇다한다.

愛兒展覽會

【함흥】 지난 十四일부터 十六일까지 三일간 함흥부내 무덕전에 개최된 애아(愛兒)전람회는 공전의 성황으로 三일간 입장자가 二만三천七백五十七명이라한다.

龍都	一六、四○八	一三	一六、八	九
江西	一六、○三○	二六	一○、二	八
江西	一七、二六	二四	一五、五	五
江內	一四、八三	六九	一四、九	七
江外	一四、五一	二四	一八、四	五
玉山	一七、四五	三三	一六、五	六
錦倉	一七、八八	三五	一四、三	三
北二	一八、六六	一四	一八、六	二
北一	一九、三九	一○六	一、七	一
計	八六、三五	一三、六九	一四、六	

氣候陰冷으로

咸南各地에赤痢

定平、北靑、咸興等地에

【함흥】 이달 초순이래로 함남일대에는 강우와 음랭한 기후가 계속되어 함남각지에 이질병이 대유행중인데 七월초순이래에 새로 발생된 이질병자가 정평부내 면(定平府內面)에 十명 북청가회면(北靑佳會面)에 五명 함흥부내에 五명이라한다.

이 매우 양호하야 대풍작을 예상하더니 지난번 장마뒤에는 의외에도 각처에 도열병(稻熱病)이 발생하야 그 피해가 막대하게 되어 농작전부를 잃어버린 참상이라한 사람까지 잇어 일반농가에서는 대단히 우려중에 잇다하며 각농장에서는 방금 그 예방에 고심하는 중이라한다.

거짓苦學生 金錢을詐取

목포경찰이체포

【목포】 지난 十六일 목포서(木浦署)에서 행동이 수상한 고학생을 검거하고 엄중한 취조를 한바에 의하면 전기 고학생은 전남 영암군 시종면 금지리(靈岩郡始終面錦池里) 김희웅(金喜雄)(二○)으로 그의 형님 김규완(金圭完)(二○)이 화순군청(和順郡廳) 회계주임으로 근무하는 공금(公金)을 소비하고 번성하기 위하야 가산을 전부 탕진하엿으므로 생활하기에 어려워 생학비를 얻기 위하야 자칭 고학생으로 꾸미고 경성고학생 구제회장 인장(印章)을 위조하야 취지서를 만드러 영암 목포 목포경찰서장(木浦警察署長)의 인장을 위조하야 취지에 찬동하는 뜻으로 표모히 문서를 만든후 영암군수(靈岩郡守)와 영암서장에게 十여원의 기부를 얻은 것같이 기입하고 영암을 비롯하야 목포에 와서 지난 十三일부터 내 수처에서 十여원의 기부금을 사취한것이 발각되어 그같이 경찰에 검거되어 방금 엄중한 취조를 받는다고 한다.

前日豪雨의

淳昌郡被害

農作物만六萬餘圓

【순창】 기보 저간의 호우로 순창(淳昌)군내 전수의 피해는 그후 당국의 조사에 의하면 아래와 갓다한다.

▲降雨量 一八八미리 ▲緊急救助戶數 三三二戶▲負傷者 五名 家畜 一九四件▲浸水家屋 床上 一六六戶▲床下二八六戶▲流失 五戶▲全潰 二六戶▲半潰 二五戶▲(畓)流失 四七一反▲埋沒 一三七七反▲浸水 八○七反▲(田)流失 二二一反▲埋沒 二九五反▲浸水 五一二反▲作物被害額 五五三四圓▲農作物被害合計六萬一百十九圓▲橋梁破壞 五個所

하므로 상무면(上蕃面)에서는 헌재의 기부를 전부 철어버리고 그 장소에 四十八평에 부요량 넷을 시설코저 도(道)로부터 보조금 四천원을 얻어 면예산 六천五백원을 합하야 一만五백원을 지난 七월부터 공사에 착수하엿다는데 준공기일은 오는十월경이라 한다.

水安堡의溫泉 改修工事着手

【괴산】 충북에 하나인 괴산군 수안보온천(槐山郡水安堡溫泉)은 一년에 내방객이 만여명에 달하야 도저히 현재의 설비로는 협착하다 하야 오는 十五일부터 개수공사를 시작하리라한다.

始興에送電

【시흥】 경기선시흥역(始興驛)부근은 요사음 영등포(永登浦)일대의 발전에 따라 차차 공업지대화하야 현재 경성방직주식회사 제사공장 건축공사를 착수하엿는데 아직까지 전기가 시설되지 못하야 장래가 촉망되는 지방유지제씨는 맹렬한 운동으로 여이든 전기사업을 지사회사에서도 동지에 전기가설의 필요를 느끼여 얼마전부터 그공사를 급히하야 지난 十五일부터 송전하엿다 한다. 이로써 시흥군철도연변에는 전부전기시설이 완성되엇다고한다.

密陽旱天繼續

未植이五割

지금 비가와도 절망돼

代播種穀價格暴騰

【밀양】 경남밀양군(密陽郡)에는 전표미수근의 한바로 인하야 신도민중에 진어 잇는 흉작이 수삼에게 되어서 지금 비가 온다하여도 모가 없어서 시재 노작을 하는 경작이 五할가량이나 된다. 그리고 一반농가에서는 대파에 분주하대 지난十八일 시장에서는 대파종자인 서숙 모밀(?)들이 一二배나 폭등되엇으므로 민양군청에서는 경찰서와 협력하야 폭리취체를 하엿다는데 십여일동안도 지금비가 오지않으면 먹지못하게 될것이 三할가량이라 한다.

또 十六일 시원 야구부는 하성철산(下聖鐵山)과 우리(?) 오후五시三十분부터 전긔三씨 심판하에 시원팀 선공으로 개시한 바 十대五로 시원군이 대승하엿다.

新院野球南勝

【시원】 해주수양원(海州首陽)팀이 시원(新院)팀과의 야구경기를 十五일 오후三시부터 시원공보 그라운드에서 삼전(杉田)、이(李)三씨 심판하에 수양원 선공으로 개시하야 六对(?)로 승리하엿다한다.

不具者溺死

【마산】 지난 十七일 오전十一시반경 북마산역 동(北馬山驛)부근에서 교북동(校北洞) 六번지 조히제 (趙稀濟)의 二남 식목(植木)(一七)은 반신불수의 몸으로 더위를 못이겨 목욕하다가 익사하엿다한다.

三萬三千圓의

開城都橋市場

◇건평이五백五十여평

十七日上棟式擧行

【개성】 개성부의 경영인 개성도교(都橋)이용품시장 신축공사는 총공비 三만三천 八백五十원으로 지난 五월초순 청부업자 구아조(久我組)에 낙찰되어 공사에 착수하야 오든바 지난十七일 오후四시 관민다수 참석아래 상동식을 성대히 거행하엿다는데 동시장 건평은 五백 五十평이오 六十八개 점포를 건축할터이라하며 준공은 늦어도 八월중순경이 되리라고 한다.

生活難悲觀

中老가自殺

【영동】 생활난을 비관하고 투강자살한 노인이 잇다. 그는 영동읍내 용남리(龍南里)에 사는 하성순(河成順)(五○)이라는 노동자로서 거금二十여년전에 충남영동읍으로 도래하야 방에서 표랑해와서 가진 고생을 당하며 한산노동으로 근근연명하든바 지난十二일에도 일거리를 찾어서 산면(山面)으로 가는 도중에 거리 와 몽이 되엿든 사정을 하소연하고 떠나서 여러가지 사정을 하소연하고 떠나 인 사정을 보고 하기 위하야 오는 二十一일 재령면(載寧面)에서 국기가 ...

陳情結果報告코저

載寧郡民大會

二十一일재령면에서개최

支廳移轉防止運動

【재령】 황해도 재령(載寧)군민대회는 十만이구의 사활문제가 되어잇는 해주지방법원 재령지청(海州地方法院載寧支廳)을 사리원으로 이전하야 군민들은 별사회적으로 방지운동을 다하는 동시에 군민대표위원 정기유(鄭麒裕)씨외 五씨를 선거하야 총독부당국에 진정을 하고 돌아왓다. 의원은 기보와같거니와 몽이 월일은 진정하야 결과를 보고하기 위하야 오는 二十一일 재령면(載寧面)에서 군민대회를 개최하고 보고연설을 하는동시 장래책을 강구할터이라한다.

鐵原稻熱病

피해가막대

【철원】 최근 철원의 신지로 유명한 철원농업수리조합(鐵原中央水利組合)구역에는 금년은 특히 예년보다 이상이 잇섯으며 또한 그후 천기가 계속 순조로우므로 벼농사는

大同江邊怪屍

他殺로判明

警察은大搜索開始

【평양】 지난 十七일 오전十一시경에 련광정(練光亭)아래 대동강(大同江)가에 조선인 노인의 시체가 발견되엇다 평양서에서는 시기(和氣)박사의 손으로 해부한결과 타살의 혐의가 명확하므로 평양서에서는 검시한결과 부내기림리(箕林里) 식공(石工)지응진(池應鎭)(六○)으로 판명되엇는데 머리와 대퇴골에 중상이 잇고 그의 노동원이 타살의 혐의 원이 끔찍한 장에 충한하야 수사중이라한다.

載寧普英校 校室을增築

【신환포】 황해도 재령군 서호면 신환포(載寧郡西湖面新煥浦)사립보영학교(私立普英學校)에서는 동교를 유지하는 후원단체가 없어 학교당국에서는 유감으로 생각하여 오든바 지난 十二일 동교내에서 유지三十명이 회합하야 선후책을 강구한 만장의치로 동교를 적극적으로 후원하기위하야 이사회(理事會)를 조직하는 동시에 조경비 六백여원으로 교사 수리와 교실 一개실을 증축하리라는데 동교의 장래를 위하야 발전하며 다음을 늘 제 교실 그 통로 二백여명에 달하리라 한다.

個人庭球大會

목포에서개최

【목포】 목포체육협회(木浦體育協會)주최와 본보목포지국 후원으로 오는 二十二일 오전九시 목포상공회의소 (木浦商工會議所)코트에서 전조선개인정구대회를 개최하리라는바 시경기일은 오는二十일이라하며 상품은 우승기급 여비를 제공하리라한다.

川內里長霖

粟作은絶望狀態

【천내리】 함경남도천내(文川)一대에는 지난八일부터 세우가 상금까지 그치지않고 十여일을 계속하야 한창발육기에 잇는 농작물에 피해가 많은데 그중에도 조(粟)는 전부된데 되어 농가에 근심꺼리가 되어잇다.

身病悲觀自殺

【정주】 평북정주군 남면 성내리 (定州郡南面城內里) 김월준 (金月俊)(二七)은 지난 十七일 오전八시경 자기 집뒤산 소나무 가지에 목을 매어 자살하엿다는데 원인은 폐병으로 신병을 비관하고 사람을 가관하며 그는 오랫동안 폐병에 결려 아모리 약을써 보앗으나 종시 낫지 않고 그같이 세상을 비관하고 자살한것이라한다.

七星閣에窃盜 釋迦畵像盜難

【하양】 경남하안군 군북면 사촌리(咸安郡北面舍村里)의 상대사 원효암 (元曉庵) 에서는 대대로 칠성각(七星閣)에 걸어 놓은 삼불화상 산왕화상(山王畵像)과 석가화상 釋迦畵像 을 지난 二十일 밤에 도적이 집어간 사건이 생기엇다 한다. 이 화상을 잃어버린 절에서 수배하엿으나 아직 범인을 체포하지 못하야 인의에 부를 처지 한다.

慶州郡廳舍新築

【경주】 경북경주군(慶州郡)군청은 三백여 년전 건물로 그대로 사용하여왓음으로 고비가 많이 불편하여 경주군민은 그 적지않은 유감으로 여겨오든바 지난 十七일 이래 수와원 이래 비로소 숙제이엇던 신축이 六백五十평의 부지에 설계가 완성되어 오는 八월에 착공하야 사용하게 되리라 한다.

深夜의太陽 (64)

金基鎭 作

李象範 畫

봉화를 들고 (七)

김옥균은 소리 크게 수문장이 자기의 이름을 알았는지 물었다. 그러나 그는 별로 부하에 수문장을 사퍼 어서 거느렷다. 수문장의 목소리가 갓다.

「우구들이십니까?」

「내야! 내야! 얼른 문을 열어…」

김옥균과 금릉위가 서로 화답하엿다.

「잠간 기다리십시오. 곳 열어드리겟습니다.」

안에서는 이같이 대답하는 것이엿다. 금릉위 다리에서 소리가 들렷다. 대문이 반만 열리엇다. 다섯사람은 의제히 안으로 들어섯다. 나무와 이 훨친 아래 죽어 오는 번 감은 하라 받는 수 등이 떨어지게 고 순간 하라는 곳이 이고요하게 바람이 부러 보기되는 순간이엿다. 나무사이로 들어 서서 그들의 동궁의 이불 해가 을 든부 향기가 에이 기들 까지 내려 어 올 되 그 이 대화 을 떨어 이 앗든 떠 하라.

「누가 너희들이 어대로 가느냐?」

김옥균은 이같이 말하는 무감의 고함하는 목소리에 놀라 발견 지 나 잇 엇다.

「누구냐! 너희들이 대궐밖에 지 아니하고 밤중에 어대를 갓가이 오는게야!」

「왜 사람들이야! 그 모양을하고 어대를 갓가히 오는게야!」

무감의 목소리가 그들을 크게 꾸짖는다.

어데를 갓가이 오는게야!

두사람은 즉시 인정전(仁政殿)으로 보내지 세사람은 대궐 안 도포자락을 이 이 이 잇 으 으로 두사람은 지 향 은 가운데 이 이 이 엇다 저 지 는 잡 기 엇 다.

「자네들은 인정전(仁政殿)으로 가서 잇다가」

편이 이 반 시 가 뒤 에 불 을 잡 는 다.

가개、화약을 묻어둔데가서 잇다가 반시가뒤에 불을 댕기란 말이야」

두사람은 지령을받고 총총히 가운데 으로 갓다. 김옥균은 시뢰는 어떤 이 이 어 비어 장 의 은 로 장 엇 다.

「자네들은 인정전(仁政殿)으로 가서 잇다가 ...

어느덧 숙장문(肅章門) 안에를 어섯다. 김옥균은 나지한 목소리로 봉관과 이식이에게 소군거리엿다.

「자네들은 인정전(仁政殿)으로 가서 잇다가」

듣지고 밖갓에서는 지금 하늘이 무너져도 듣지 못하고 오빠진 남은잡이 고요히 누어잇는것같다. 아무도 큰소리를 내지아니하엿다. 사방이 괴괴한 가운데를 그들의 발자국소리만이 그 깊이 든 잠의 비밀을 발으면서 거러갓다.

듣 실수없이!」

그는 엄밀하게 주의를 주고서 두사람과 헤어젓다. 그들의 보고서 어섯다. 그들의 침전(寢殿)안에 들기다리고 잇든 변수가 뛰어나오드니 김옥균의 귀에 입을 대고서

「상감마마는 벌서 침실에 드시엇습니다. 그리고 궁중에는 아모 염려도 없습니다」

하고, 위에서는 조금도 지금 밖갓에서 일어난 일을 모르실뿐만 아니라 또 아모 의심도 없으시다는 궁세의 보고를 한다.

나서라!」

무슨이 크게 띄어지고 안광이 닭빛아래에 불을 켜는것같이 빛나며 위엄이 전신에서 넘치는것 같엇다. 김옥균은 호령을 하고 도포소매를 걷고 제정을 비켜섯다. 김옥균은 도포소매를 휘저으면서 그대로 협양문안으로 발길을 돌려놓앗다. 무사람이 그 등뒤 따랏다.

뜻밖에 평복(平服)을하고서 밤중에 이같이 무엄(無嚴)히 지밀(至密)같은 곳에 들어오는 그들을 보면서도 감히 감탄하지못한 부감들은 크게 경황하야 그들의 뒤를 쫓아오면서 묻는다.

「누구십니까?」

「밖에서 난리가 낫습니까?」

「웬일이온지 소인들에게도 알려주시십시오」

그러나 세사람은 대답하지 않고 합문(閤門)앞에까지 왓다. 당직(當直)하고잇든 소내장(小監長)과 부감들이 별정으로 인 상하고 그곳에 잇엇다.

김옥균은 그의앞으로 갓가히 가서 가만히 말햇다.

「단속을 단단히! 호령이 잇거

男子의眞價는 胸三寸? 腦三寸?

男 生殖器 發育不全 機能障害

物理作用=强健發育

神經衰弱도更生되는故로 日常의氣分도明朗해진다

男子의眞價는무엇

好男子라도 알고보면 이정남것으로는 壯한 사람이 되지못한다. 颯男子라도 立身出世하는사람이 많으므로 「男子는胸三寸」이라는 古諺이 잇다 昔人은 人間의 機能의 作用은 가슴에 잇다고 생각햇든것이다. 그런데 近世의

解剖學의進步

하고보즈가 심장에는 呼吸을하는 肺臟、血液의 循環을 하는 心臟이 잇을뿐이오, 精神의 作用은 머릿속의 腦髓에 잇음을 알게되는 故로, 저사람의 머리가 좋다거나 하게되고, 『男子의眞價는 腦三寸』으로 變하게 한것이다.

그런데 近者에 다시 內分泌學이 發達하고 보니 腦로 生殖腺의 內分泌 하는 호르몬으로 因하야 發達하고 才能이 動作하고 元氣를 내는 것이므로 生殖腺이

男子腦力의根本

인것을 알게되엇다. 그리하야 生殖器가 發育不全하고 機能障害의 것과는 힘이 壓力도 甚하고 進取의 氣象도 없고 出世치 못하는 無能의 落伍者가 되고、또 나는 젊어도 乙은 이 腦세가 나서 早老者 하야 短命하지마는 生殖器가 强健하면 나이 들어도 活動이 되어 若者보다도 活動하야 、不老長壽를 享受하는것은 醫學上 當然하다 하야 지하게 되엇으므로、生殖器의 强健

호르몬은生命이라

고까지 말하게 된 것이다.

劃時代的物理療法

이에 劃時代的 物理療法으로는 作用되어、男子 生殖器의 强健과 回春의 效果를 發揮하는 器具로서 醫學界에서도 卓越한 唯一의 實驗的 方面에 서 醫學界의 實證의 方面에서도 推薦하야 이 器具가 現代의 名藥品이라고 賞讚 받고、日獨佛의 專賣特許

리ツク眞空水治器

는 日本醫學界의 權威者 男子의 生殖器發育不全、陰萎、短小、機能障害、거우十圓未滿의 安價로 强健 發育하야 男子 一生의 幸福을 開拓하므로 實業界의 好評을 이미 得하엿다.

眞空吸引力

本器는 理學的 構造가 精巧絶妙하야、形은 小하고 輕便하지마는 効力은 卓然하므로 一日 一回 겨우 十分間씩 自宅으로 就寝前에 施行하면、目前에 陰部에 强壯한 眞空 吸引力으로 因하야 局部에 新鮮한 血液이 副副的으로 流入하야 斷續的으로 刺戟하고 하야 筋肉을 十二分 發達하게 하야 活力을 旺盛하게 하야、局部의 으로 發育을 促進하야、本器의 眞空 吸引力으로 因하야 本器는 血液 循環의 强

에퀴하작用

正常 血液 循環의 機能을 回復시키어、局部의 生殖器의 萎縮을 强하게 하야 完全한 活力을 發生하야、男子 機能을 强化하고、不自然的 行爲로 因한 神經衰弱、頭痛、耳鳴、早漏 精力 減退、陰萎、早老 等을 回復하야 精力의 增進을 圖謀하야、腦의 强壯 등 生殖器 部가 增進하야 活動力이 增加하여지고、日常의 生活氣分까지 明朗해지고、男子의 根本的 能力이 强하여 가지고 되어 成功의 運命이 向上된다.

東京新療法研究所外景

◎어서男子의資格을完成하라。

男子로 남보란듯이 生殖器 短小로 暗澹한 運命에 하는 사람과、一次本器를 試驗하야、强健으로 기름을 어서 人生이 明朗해지고 幸不幸의 差가 얼마나 될고、어서나 아와 體驗하야 男子의 資格을 完成하야 前途의 幸福과 成功을 要求全하시라

醫學博士 六十氏 實驗證明推奬

日、獨、佛專賣特許 名譽金牌受領

登錄 ◇ホリツク眞空水治器 金 六 圓 送料內地 三十錢 鮮滿 六十錢

商標 ◇ホリツク包莖安全器 金 四 圓 送料內地 二十五錢 鮮滿 四十錢

◇包莖 은ホリツク包莖安全器로 無血無痛하고 재지지않고、自身으로 安全히 矯正됩니다

△代金引換으로 할明의 說明書가付하고 注文하시면 發送함(代金引換料十五錢)

無料進呈 (非賣品) 圖入說明書

適化의 秘術 男子의 生理的 新知識을 解剖的 說明하야、本器의 內容을 詳細說明하고 더욱이 生殖器短小 男子의 深刻한 悲哀의 事實、本器의 實驗者가 大歡喜의 實驗談 等을 多數 記載한 것이오니 곧 一讀하시오、秘密은 安心하시고 葉書로 御請求하시되、住所氏名을 明記하시오

◇가짜 가잇다、반드시ホリツク의 四文字商標(마ー크)에 注意하시오

東京市芝區神谷町十八 電話芝三三三九 振替東京七七七三 合資 東京新療法研究所

社告

任敦城支局長 金洛英

依願解職 敦城支局長 張昌化

今般 弊社敦城支局長을 如左히 變更하오니 茲에 謹告하나이다

昭和九年七月五日 東亞日報社

任新川支局長 白樂容

今般 弊社 支局長을 如左히 任命하엿사오니 茲에 謹告하나이다

昭和九年七月十日 東亞日報社

謹告

依願解職 記者 金相鉉

昭和九年七月五日 東亞日報社 靑山分局

ラクトーゲン

育兒

母乳에 加한 유일의 것이 는 乳 의 營 養

母乳와 牛乳의 比較表

成分量	サクトーゲン七倍稀釋液	母乳	牛乳	煉乳三倍稀釋	粉乳七倍稀釋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ナシ	ナシ	ナシ	[illegible]	ナシ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迷信을팔아 사는무리들 (一)

金正實

「얼시구좋다 저르시고 지화자 자져르시고 넘실이 넘실 넘실 이야」 이 흥청거리는 소래는 조선의 리 간곳마다 들려옵니다. 서ㅁ 지어오 피상하로 무당 네무리가 [illegible]

차차 민간예술로 [illegible] 거기 더가 [illegible] 가하야 이영사람들의 입에서 [illegible] 나오게 되엿습니다.

□□고구려□□ 백제(百濟) 신라(新羅) 시대에도 이 무당이라는것은 잇어왓고 고려의 한창 불교가 융성하야 국민에게 해독을 끼치다하여서 조선시대에 들면서 불교를 압박하게 되자 중국 사람들이 [illegible] 그대신 무당이 민간신앙(信仰)의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게 된것입니다.

이 말들으대 뿌리를 [illegible] 로 그것이 주는바 사회적 영향은 [illegible] 조선에서도 [illegible] 무당이잇는 세월이 되엇고 또 [illegible] 의 우는소리가 사라지지는 더 [illegible]

[illegible] 서의 대표로는 도시[illegible] 로도 그 천명의 무당 [illegible] 에 [illegible] 니다.

사람은 만물의 영장이라 해서 [illegible] 천지만물중에 인간의 우예 [illegible] 없다는 자만을 하다가도 병이나고 재앙을 만나면 이것이 무슨 귀신이 붙지 않엇나 [illegible]

□□통폐가□□ 되지 않엇다 [illegible] 오키게 되어서 결국은 [illegible] 되다고까지 이르게 됩니다.

가끔 송사[illegible] 조합(巫覡人組合) 에서 [illegible] 가시 [illegible]

[illegible] 에서 하는것으로 [illegible] 를 [illegible] 습니다.

여러천년동안 가정이라는 [illegible] 에 파무쳐 살아온 여성들이 되고 보매 [illegible] 하는 생각에 사로잡혀서 부 [illegible] 어 하는 [illegible] 하는 [illegible] 이 앞서게 된것입니다.

종교유사(宗敎類似)단체로 인정하다는 [illegible] 는 사시상 여자들의 믿는것을 신자로 처다면 실로 막대한 수짜에 달한것입니다.

□□최근에□□ 조사하바에 의하면 평청 一의 만八천명이라고 하지마는 경사의 조사에 [illegible] 一만一천 六백 八十七명이라고 전하니다.

조선인구의 二배분지一 이나 되는 다수한 사람들이 여기[illegible] 미신을믿고 복당하고 재앙을 쫓는다는 구실로 미고 입고 살아가고 잇습니다. 경찰에서 표면으로는 취체한다하고 못듣체하고 내버려두니 점점 늘어가지 [illegible] 지는 않는 형편입니다.

경무당국에서 취체방침을 나리려고하고 지방경찰이 철저한 [illegible] 을 가하려는 기세를 보이고 [illegible] 간속으로서도 이대체의 박멸을 목지하고 일어나고잇어 마치 [illegible] 망이란 한 이야기거리가 되엇습니다.

그들이 주는바 해독은 무엇, 대체 그들의 하는 것이라는 것은 무엇, 무엇이 그들로 하여금 무당이 되게 하엿더가 그들의 여사는 어떠가 하는등의 이야기를 좀 해보기 하겟다.

(커트는평양무당)

가정의학

【1】

애기를 못낫는것은무슨까닭?

그치료법과수태시기에대하야

京城府立府民病院産婦科 尹泰權

[illegible] 결혼하여 [illegible] 가 [illegible] 불임증(不姙症)이라고 하는 [illegible] 시 사람마다 [illegible] 만三년이나되도록 임신을 못하 [illegible]

◇학상으로 불임이라하는것은 그녀자가 초기만[illegible] (月經) [illegible] 까지 한번도 [illegible]

◇그러므로 불임증을치료하라면 여자만치료하아시는 잘못 [illegible] 자에게 원인이 잇는 경우도 많으며 불임증에 [illegible] 남자가 원인이 잇는 것이 [illegible] 라서 여자만 치료할 [illegible] 그러므로 여자의 [illegible]

◇외음부의 병으로는 처녀막이 강하든가 [illegible] 거나 [illegible]

家庭常識

◇오점빼는법

3 피가묻엇을때

피가묻은것은 물에 [illegible] 더이 [illegible] 다. 또 [illegible]

二百年來의 큰가물

八백년만에 처음이라는 지금의 수해와 또 [illegible] 이갈라져 [illegible]

가정납양법

세간을다치우고 「大」짜로누으면

城北洞 李元石

[illegible] 정원에 [illegible] 가지 피서할수잇는 [illegible] 외하고 [illegible]

그러한 모든 방법보다 [illegible]

◇불임증의원인

[illegible] 부부간에 [illegible] 불임증의 원인 [illegible]

◇결혼한지 만三년이 되어도 [illegible]

◇임신못한 불임증과 또 [illegible]

동화

나비와꾀꼬리

(三)……李定鎬

그러나 어데 어느곳에 그런집이 잇는지 아는수가 잇습니까? 하는수없이 [illegible] 마침 늘히면서 [illegible] 기 [illegible]

[illegible] 에 어린봉생이 [illegible]

상한 나비를 보지못햇습니까? 우리는 그집을 찾어가려고 그럽니다」

하고 꾀꼬리 이야기를 자세히 하엿습니다.

꼬리는 그말을 듣고,

「아―알고말고요 착한 나비가 불상하게 근심을 하고 잇습니다. 어서 가 보십시요 여기서 저―쪽으로 쭉―가서 아마 십리는 될걸요 여기서 꼿장가면 그어떠잇는 꼿이 보입니다. 어서 가보십시요」

하고 친절히 아르켜주고 부줌니다. 그러나 [illegible] 급하다고 인사하고 잣습니다. 나비와 꾀꼬리는 기 빼서 한숨에 갑수키 남쪽으로 [illegible] 습니다.

하하이나 가니까 언덕이 보엿습니다. 그 언덕우에는 꿈에보는● 그 조그만 집이 잇고 뒤뜰에는 꿈에보든 봉배꼿도 피여 잇엇습니다. 어떠케도 반가운지.

「여기다 여기단」

하고 나비는 꾀꼬리를 다리고 봉배 꼿 나무에 앉어서

「아가씨 아가씨 문여러주십시요」

하고 불럿습니다. 그러나 아모리 불러도 방속에서는 아모 대답도 없엇습니다.

그러니까 꾀꼬리가

「아모리 무르를 여러드릴리가 잇나」

하고 이번에는 자기가 그어여쁜 목소리로

「꾀꼴 꾀꼴 꾀꼬꼴……」

하고 노래를 불럿습니다. 그러니까 방속에서 깜짝 놀래는듯한 소리가 나더니 방문이 드르륵 열렷습니다. 꾀꼬리는 그냥 작고 작고 노래를 불럿습니다.

유치원 노래

쨍아쨍아

(金泰午)

쨍아쨍아
고초쨍아
춤잘추는
비행기야
먼대먼대
가지말구
요리와서
놀렴으나

◇

쨍아쨍아
고추쨍아
춤잘추는
비행기야
강낭수수
줄러이니
나구함께
놀작구나

축농증

【문】 소생은 四년전부터 상악독 축농증이 잇아온데 모의사에게 뭇어보니 수술하라 하오니 수술하지않고 보통 매약정에잇는 [illegible] 이라는 [illegible] 으로 치료하면 어떠켓습니가 [illegible] 으로 치료하는방법을 하교하여주십시오. (十八세남자)

【답】 상악두축농증이라면 보통매약으로는 잘 낭으리라고 생각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수술하여야 될것입니다. 수술하는데 대하야 毘의의 다파도 문제 이지오만은 기술의 우열은 더큰 문제가 됩니다. 그러므로 이무것을 고려하야 수술을 받으시지오.

(社會醫民聲醫院院長 劉錫昶 氏)

또한가지는 [illegible] 를 [illegible] 에 피가 [illegible]

빈대퇴치법

유리로 굽도리를

(仁寺洞 洪書約)

紙上病院

▽…봉투에 엽서에 한글로
▽…간단하게 병명을 무르실것
▽…글시는 정하게 시연한 단하게

뇌신경쇠약

【문】 저는 二十五세의 청년이되 의사의 진단을 받은 즉 뇌신경쇠약증세가 잇다고합니다 그런데 十여년전에는 [illegible] 이면 코에서 누런 [illegible] 새가 나는 [illegible] 잇엇고 뇌의 사용을 [illegible]

【답】 아마 축농증(蓄膿症)이 [illegible] 치료방법을 가르쳐 주십시오. (城南人)

[illegible] 藥物療法中毒治療所 安國一氏)

日本一 發賣 八月号 銷夏第二の書

婦人公論

夏と家庭の平和

あなたの心を高め教養を明るくする雜誌はうさざラにあるものではない。試みに八月號の婦人公論を手にとつて御覽なさい。心から滿足を興へるものもあふれるばかりの言葉がこれほどピツタリとあてはまる雜誌は他にないことを感じられるでせう。

新連載小說 祖國の娘 倉田百三作 田中良畫

新しき國民文学の出現 雌伏十年の作者が魂を打込んで世に問ふ大作 愈々發表!!

夏姿を美しくするには?
□繪指導 高田せい子
洋裝 メイ・牛山
むづかしい夏の洋裝・洋裝にふさはしい皮膚のやき方・暑中まで汗をにじませない工夫・黒げたくない方の皮膚の手入れ・夏の外出と洋服けの用意・着物の下着の巧みな着方
和裝 芝山みよか
涼しさは髮の手入れから・涼しさうな髮の形・髮かざり・涼しい着物・長襦袢の着方・明石・千石の着方・中棟・兵兒帶・涼しい帶の結び方

夏姿を美しくする新工夫 指導 芝山みよか 高田せい子 メイ・牛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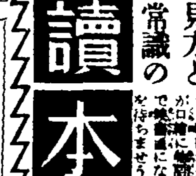
□ブラウスとスカーツで外出するには
□涼しさうなフラワーピンの作り方
□氣輕な夏の旅裝はかうして
涼しいコットン・ブラウスの作り方
▽お誕生頃の可愛い夏のベビー服
▽簡單で涼しい新案ちぐさ帶

▽恐ろしい乳兒の病氣の豫防と手當
□準日本一健康優良兒を育てし熨斗くに
▽手近の果實液で肌を美しくする法
▽香水の知識 A・B・C

姙娠の早期診斷 醫學博士 佐伯……

△夏の飲物ソフト・ドリンクス
□おいしい八月の獻立
△凝つたビールの肴十種

映画 特輯
正しい見方と常識の
また の名えいぐわ・つう
映畫の見方・映畫の歷史・名映畫物語
美しい口繪四十頁
挿入寫眞二〇〇



讀本

たうとう出ました。これこそこの一夏を十二分に樂しんでいただける特輯です。映畫が生れて以來の世界の名作が口繪に繪卷に展開します。これで映畫通になつて秋のシーズンを待ちませう。

好評さくさく
長篇小說 氷……大佛次郎
長篇小說 春の逃げ水……吉田絃二郎
長篇小說 青春音頭……サトウ・ハチロー
大衆小說 黃菊白菊……細田民樹
道中女仁義……長谷川伸

成立の眞相 岡田內閣 政界の裏面を衝いて快刀亂麻を斷つ特輯掲載 伊藤正德

夏と家庭の平和
家庭の平和 (座談會) 三宅正太郎
□家庭の平和を子供本位……安部磯雄
□夫の立場から……小島政二郎
□結婚は二人の責任……與謝野晶子
□一つのお願ひ……小寺菊子
眞杉靜枝・平田節子・林芙美子・西村伊作……

△書簡の往復について……德富蘇峰
森の仙女風蘭 (口繪)……薄田泣菫
ひる寢の哲學 正宗白鳥・佐藤春夫・林芙美子 淸水……
□情熱の女詩人サロヂニ・ナイヅ 印度に咲く情熱の女詩人……野口米次郎
□再び全國の愛讀者訪問……嶋中雄作
[日曜發表]

山田わかと共に三十三年 夫婦愛の眞髓山田夫妻の三十年間を夫君山田嘉吉氏が語る 山田嘉吉

△海軍兵學校見學記……本誌記者
△噴火山麓の男裝の少女……伊藤金次郎
ダンサー秘私 令嬢……三島小枝子
□血に呪はれた家(第三回)……廣瀨操郎
女性時評(山川菊榮) 世界の動き(清澤洌)

■入選■ 諸國くわいだん集 (四篇)
大懸賞 女學生の夏の試驗問題
誌上納涼漫畫祭
職業婦人から家庭の主婦になった經驗(五篇)
△事務員から △女敎師から △女給から

泪ある笑顏(悲しき出世) 小唄勝太郎

悲しき運命に抗して戰ひぬいて來たところに何があつたか。女の道はどこまでも不幸にできてゐる。筆者は今全國に嵐の如き流行をよぶ鶯兒藝の小唄勝太郎さん。一すぢの戀をいのちに越えて來た半生の浮き沈み――今全盛のかげに泣く彼女が赤裸々の告白!

定價普通號通り五十錢 東京 中央公論社

新版 日本畸人傳 白石実三著

目次一班
讀書絕好の讀物!! 増補出來!!
新版日本畸人傳 古今傳奇物語 實說怪談大全
女大力 明石城忠臣 小野小町
西仙大町桂月 戲作中佐渡の戲 平賀源内
狂畫師曉明 江戶城の仇討 久米の仙人
明治の穴仙人 八王子の義賊 お菊の兵衛
忘却先生 上州長兵衛 三伴人
大酒大食會 吉田松陰
四六版五〇〇頁 定價一・五〇
中央公論社

ClibPDF - www.fastio.com